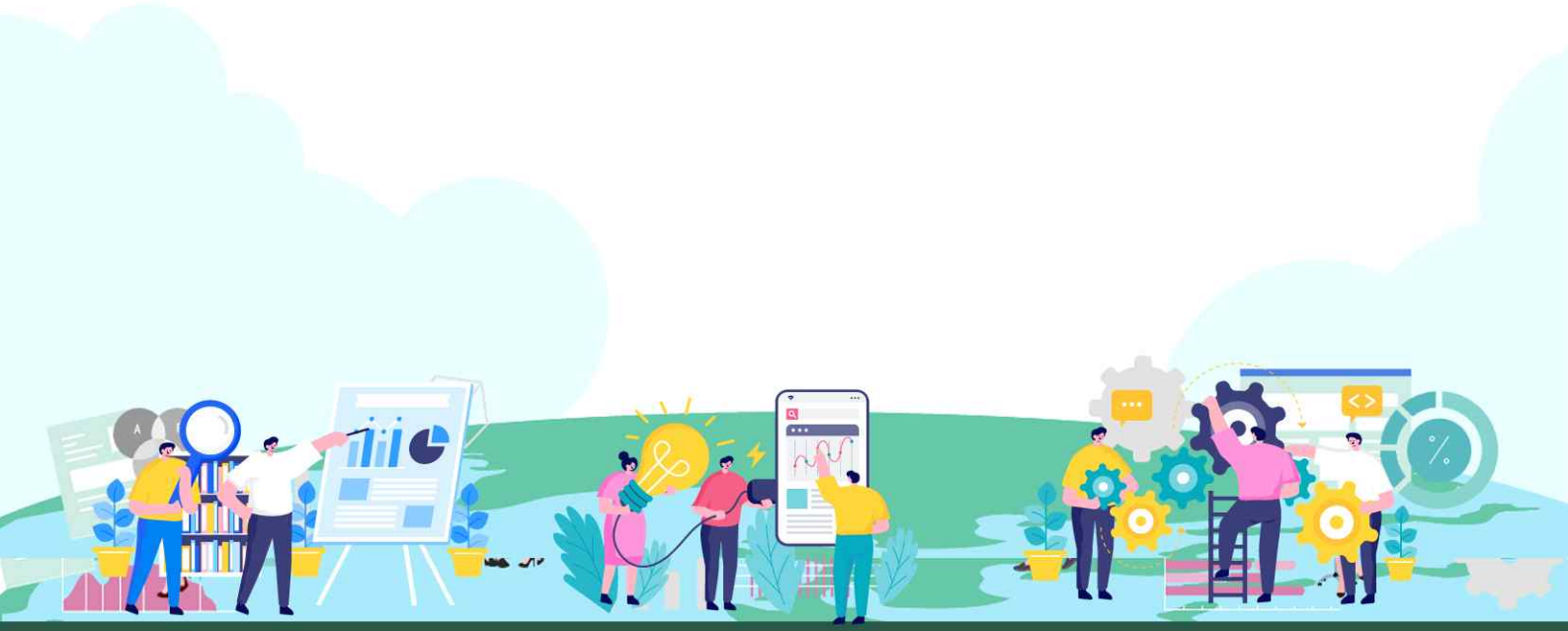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의 장기통계 1

박이택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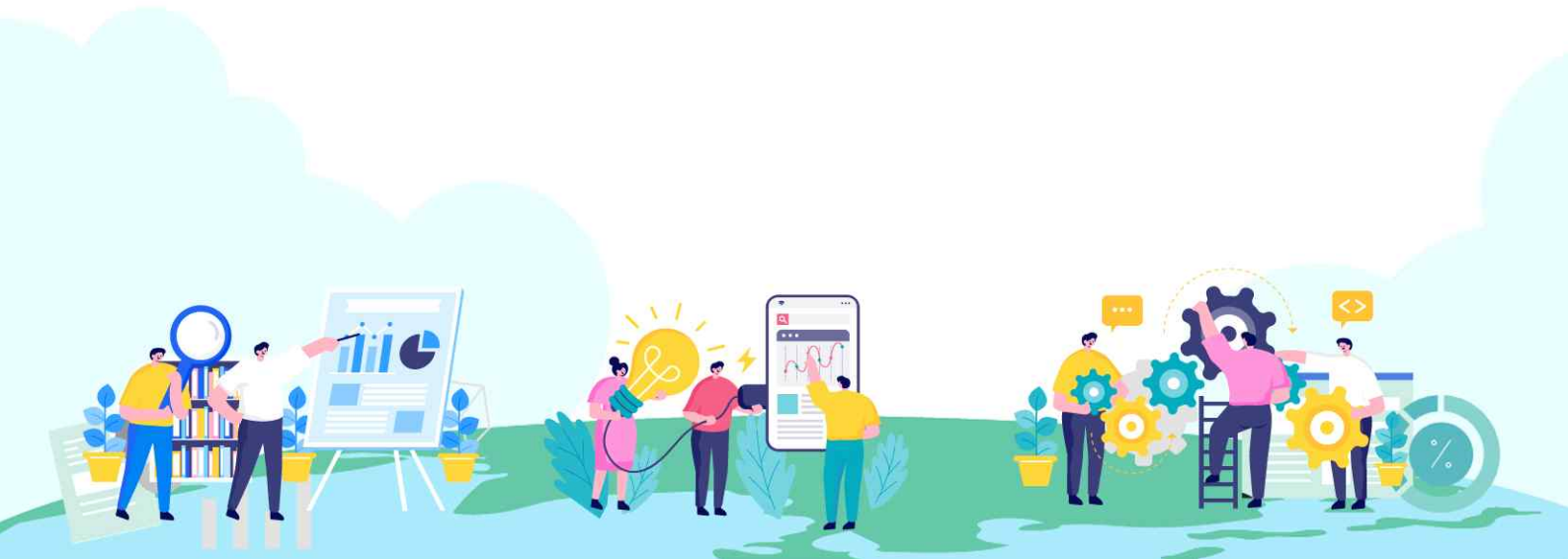
3 Lecture 21

4 讲义 44

5 퀴즈 60

6 토론 64

7 자료 66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의 장기통계 1

박이택 교수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본 강의의 교재는 『한국의 장기통계 I』(2018, 해남)입니다. 『한국의 장기통계』는 자연과 지리, 인구, 노동력, 임금, 교육, 건강,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국민소득, 물가, 자본과 부, 과학기술, 기업조직, 화폐와 금융제도, 정부 재정과 고용, 사법, 대외무역과 환율 등 22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I권에는 이중 앞 11개 장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첫 시간에 『한국의 장기통계』 출간의 의의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제I권에 수록된 11개 장을 강의합니다.

02 학습목표

(1) 한국의 장기통계 구축 작업의 의의와 『한국의 장기통계』 출간의 의의에 대해 학습합니다.
(2) 한국 경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시계열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조사와 통계자료에 대해 학습합니다.
(3) 한국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 구조변화의 양상을 장기 시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합니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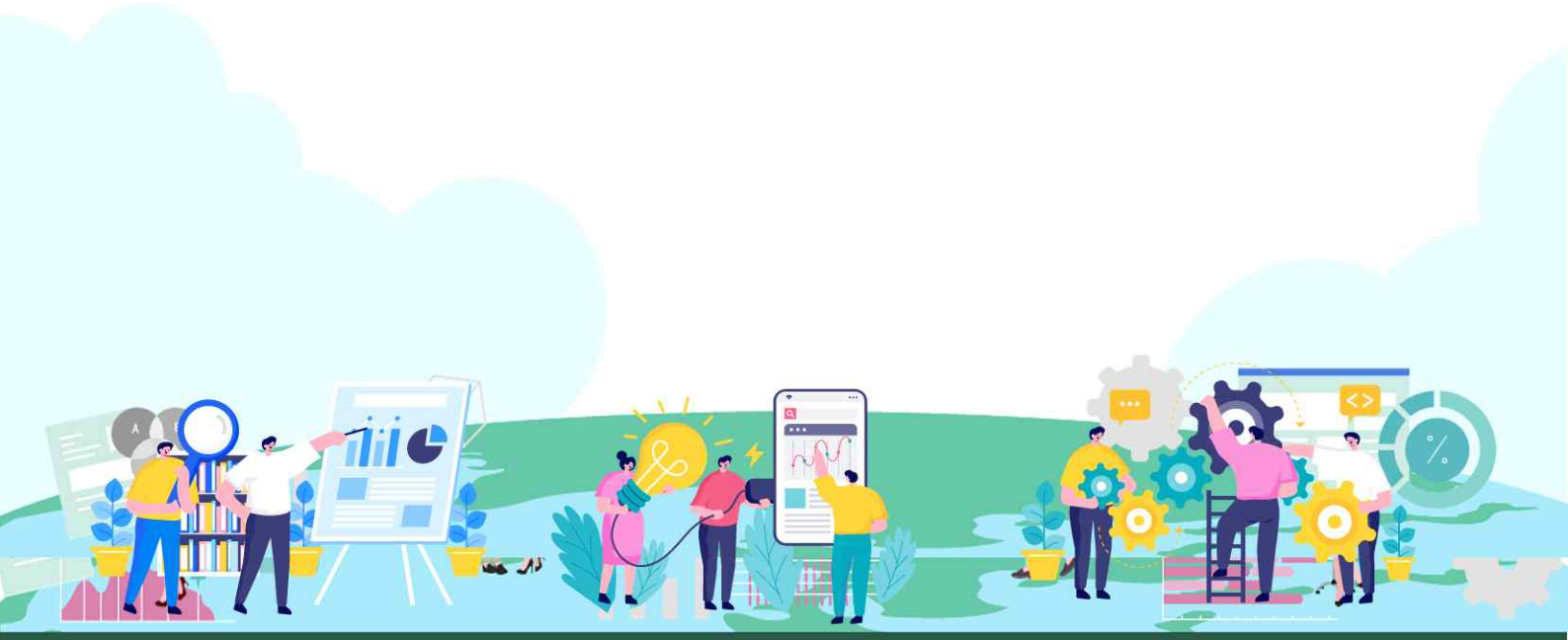
본 강의의 수강생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의 특질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통계서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표준적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형성시켜 줄 것입니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한국의 장기통계 출간의 의의
2주차	자연과 지리
3주차	인구
4주차	노동력
5주차	임금
6주차	교육
7주차	건강
8주차	농업
9주차	천연자원
10주차	건설 및 주택
11주차	제조업
12주차	유통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주차 한국의 장기통계 출간의 의의

1-1 책의 구성과 강의 목표와 일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I 강의를 맡은 박이택 입니다.

이 강의는 2018년에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I>>과 <<한국의 장기통계 II>>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자연환경과 인구에서부터 노동력과 임금, 각종 산업과 무역, 재정과 금융, 국민소득과 물가는 물론, 교육, 건강, 기업조직, 과학기술, 사법에 이르는 22개 분야에 걸쳐 있어 근대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를 장기통계를 통해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장기통계를 제시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우선 이 책의 구성과 강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서는 총 22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의 제목만을 말씀드리면, 자연과 지리, 인구, 노동력, 임금, 교육, 건강,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국민소득, 물가, 자본과 부, 과학기술, 기업조직, 화폐와 금융제도, 정부 재정과 고용, 사법, 대외무역과 환율이 그것입니다. 이 22개의 장 중 앞 11개 장은 제1권으로, 뒤 11개 장은 제II권으로 나누어 발간되었습니다.

이 22개의 장은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조감하는데 필요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장들이 국민경제순환 및 거시경제 성과와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식도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자는 가계로부터 자본과 토지와 노동을 구입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이 생산물은 중간재수요,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수요, 수출 등에 사용됩니다. 생산물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대가로 분배됩니다. 가계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과 지대, 이자 등을 받는데, 이 중 일부는 세금으로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민간소비와 가계저축에 사용됩니다.

민간의 가계저축과 외국에서 들어온 국외저축은 투자의 원천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생산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에서 수출과 국외저축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순환을 국민경제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상품 및 자본의 거래는 국제 분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거시경제 성과는 국민경제순환과 국제 분업의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국민경제순환과 국제 분업, 거시경제 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자연 환경과 제도 환경의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를 야기하는 한 요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를 이용하여 각 장이 어느 부문에 해당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식도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떠받치는 것은 자연 환경 및 제도 환경인데, 본 책의 자연과 지리, 사법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국민경제순환은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시장은 경제활동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 책에서 경제활동은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생산물시장에 해당합니다. 생산요소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에서 생산요소는 생산물로 변환되는데, 이와 관련된 장이 노동력, 자본과 부, 과학기술입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자, 가계, 정부가 있는데, 생산자에 대한 것은 기업조직에서, 정부에 대한 것은 정부재정과 고용에서 다룹니다. 가계의 경우, 임금을 비롯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구의 재생산 및 인적자본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장이 임금, 인구, 교육, 건강입니다.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자본의 형성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저축 및 투자활동과 관련된 장은 화폐와 금융제도입니다.

경제 성과에는 국제 분업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장은 대외무역과 환율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 분업의 결과를 총괄하는 것이 거시경제 성과인데, 거시경제 성과와 관련된 장은 국민소득과 물가입니다.

위에서는 편의상 22개의 장을 각각 한 곳에 배치하여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각 장은 한 부분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 복잡한 세부사항을 이곳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장을 강의하면서 필요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책의 22장은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조감하는 데 필요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장은 해설과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에는 해당 분야의 통계자료 상황을 개관하고 이 분야의 역사통계를 이용하려는 연구자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추이 그래프를 예시하여 해당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계열 통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시계열이 아닌 통계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 수록된 시계열의 수는 장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시계열 수가 가장 적은 장은 205개의 시계열을, 가장 많은 장은 952개의 시계열을 수록하고 있어, 도합 약 1만개의 시계열 통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열 통계들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하여 표를 만들고 해설을 썼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한 장을 혼자 쓴 경우도 있지만, 2명이나 3명이 함께 한 장의 통계표를 만들고 해설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2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필자의 수도 22명으로 같습니다. 우연하게도 장 수와 집필자 수가 같게 되었습니다.

22명이 모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와 같은 통계서를 작성한 것은 이와 같은 작업의 학술적 의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지만, 연구자들도 자신의 전공을 넘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원하는 통계를 찾아 적절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통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유사한 문제에 부딪칩니다. 예컨대 경제학자들이 현대경제를 연구할 때 고도성장기나 해방 전까지 포함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희소합니다.

경제사 연구자들도 자신이 전공한 시기를 좀처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시기별로 자료 상황의 차이가 커서, 그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장벽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19세기 이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문 자료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세기 전반인 식민지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자료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근으로 오면서 한문 자료와 일본어 자료에 능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가 더 적어져서 언어의 장벽은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과 경제사 연구가 거의 교류 없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학문분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2명이 22개 분야를 망라한 통계서를 만들게 된 것은 앞서 말한 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통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통계서의 이용자들은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지표들이 해방 전과 후에 걸쳐 어떠한 추이를 밟아왔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가 다른 분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거나 받았을 터인데, 본서가 제공하는 수량정보는 그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명하는 연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통계의 정비는 각국의 발전경로 전체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비교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나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가 지난 1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해 왔고, 외국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수량적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 통계서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 통계서가 워낙 방대한 통계를 다루다 보니 통계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원활히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통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들이 어떠한 통계조사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통계조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통계가 다루고 있는 분야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까지 책의 구성과 강의목표 및 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외국의 장기통계 구축 현황 및 한국에서의 장기통계 구축의 여정, 한국의 장기통계의 우수성과 출간의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 외국의 장기통계 구축현황: 그로닝겐 대학과 히토츠바시 대학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장기통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 1988년에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된 Mitchell이 편집한 *British Historical Statistics*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사 통계서는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의 목차를 소개하면, 인구 및 인구 동태 통계, 노동력, 농업, 연료 및 에너지, 금속, 섬유, 건물, 기타 산업통계, 대외무역, 운송 및 통신, 공공재정, 금융기관, 소비, 가격, 기타 통계, 국민계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카와 카즈시(大川一司), 시노하라 미요헤이(篠原三代平), 우메무라 마타지(梅村又次)가 편집한 14권으로 구성된 『장기경제통계: 추계와 분석』이 1965에서 1988에 걸쳐 동양경제신보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권의 제목만을 소개하면, 국민소득, 노동력, 자본스톡, 자본형성, 저축과 통화, 개인소비지출, 재정지출, 물가, 농림업, 광공업, 섬유공업, 철도와 전력, 지역경제통계, 무역과 국제수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Susan Carter 등이 편집한 5권으로 된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Earliest Time to the Present: Millenium Edition*이 2006년에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1권은 인구와 관련된 7개 주제를, 제2권은 노동 및 복지와 관련된 7개 주제를, 제3권은 경제 구조 및 성과와 관련된 9개 주제를, 제4권은 경제부문과 관련된 8개 주제를, 제5권을 정부 및 국제관계와 관련된 8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 통계서는 식민지시기로부터 현재에 걸쳐 39개의 광범한 주제에 대해서 37,000개가 넘는 통계계열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사통계 정비의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는 이 통계서의 편재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통계서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두 종류의 통계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나라의 모든 분야의 통계서는 아니지만, 경제사나 경제학에 큰 영향을 준 통계서로 Maddison이 2003년에 OECD에서 출간한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인구와 GDP의 역사적 추이를 추계하여 제시한 것인데, 세계경제사의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한 책입니다.

둘째는, 일본의『장기경제통계: 추계와 분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던 히토츠바시 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장기경제통계 추계작업입니다. 이 추계작업의 결과는 12권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권의 제목만을 제시하면, 대만, 베트남, 중국, 한국· 북조선, 타이,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쉬, 필리핀, 터키·이집트,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본입니다. 2019년에는 아시아 장기경제통계의 제4권으로 한국·북조선 편이 출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디슨 프로젝트와 아시아 장기경제통계의 현황을 본 통계서와의 관계도 포함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은 1926년에 태어난 영국 경제학자로, 기원후 세계 각국의 경제규모를 비교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앞서 소개한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는 그 작업을 대표하는 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자신이 구축한 세계인구 및 GDP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작업은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른바 매디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로닝겐 대학에서 그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디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 관련통계는 원래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추계한 것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구축된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는 한국통계로 본 통계서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히토츠바시 대학은 1965년부터 1988년에 걸쳐『장기경제통계: 추계와 분석』14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통계서는 메이지 이후 일본경제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의 특성을 파악한 후, 각 영역마다 독자적인 추계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지출을 산출한 통계서입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은 이 연구를 모형으로 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의 장기경제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아시아장기경제통계 제4권 한국·북조선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 통계서에 수록된 국민소득 추계결과를 담은『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와 관련 연구성과들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명기하여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는 아시아 각국의 통계구축에 있어 허브 역할을 하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로부터도 본 통계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우수성을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는 장기통계의 구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자신들의 장기통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통계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서는 발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통계서에 실린 국민소득의 경우, 매디슨 프로젝트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로닝겐 대학과 아시아 장기경제통계 구축의 허브 역할을 하는 히토츠비시 대학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 한국의 장기통계구축 여정

본서는 우리나라 장기통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약간 소개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근대적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후기에 대해서는 양반의 일기와 가계부, 추수기와 토지매매 문서, 동계나 문중계의 회계 관련 자료, 족보 등 산재되어 있는 미시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인구, 농업생산이나 지대량, 임금이나 물가 등의 장기추이를 추계하였는데, 그 성과는 2001년 일조각에서 출판된 『맛질의 농민들』과 2004년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출판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맛질의 농민들』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에 세거하였던 함양 박씨 문중이 남긴 일기와 일용, 분재기, 부조기 등 183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연구논문들을 모아 출간한 저서로서, 농촌재화시장의 구조와 변동, 농촌의 재화가격과 물가의 추이, 농업임금의 추이, 재촌양반 지주경영의 동향,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농촌사회의 신용과 계, 농촌사회에서의 선물교환, 사망의 계절적 분포와 시기적 변화,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등 전통사회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한 최초의 한국근세 촌락생활사 연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 예천지방의 1840년대 이후 1930년대까지의 각종 생산·물가·임금·이자율의 시계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905년 이전은 공권력에 의해 사회와 경제에 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는 이른바 '전통계(前統計)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맛질의 농민들』에서, 비록 예천군의 한 마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통계(前統計)의 시대'에도 조선후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남긴 미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 한국의 사회 경제의 장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기 시계열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조선후기 사회 경제의 장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미시적인 자료는 예천군 용문면 맛질을 제외하고도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영암지방의 쌀 값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장암리 문씨 일족의 계책과 망호리 이씨 일족의 계책은 1744년부터 200여년에 걸쳐 있으며, 군서면 구림리의 동계는 16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주의 용산서원과 방어리의 계책, 전라도 남해 윤씨 일족의 계책, 경상도 안동 이씨 일족의 계책, 경주 옥산서원의 도록·전여기, 1870년대부터 60년간 이어지는 울산의 심씨 양반의 일기, 울산 구강서원의 자료, 남원의 이씨 일족의 계책, 부여의 정씨 양반의 일기, 연기의 림씨 일족의 계책,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만매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토지매매문기와 400여종의 의궤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모아 '전통계(前統計)의 시대'인 조선후기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한 연구 논문들을 모은 저서가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입니다. 이 저서에는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변동, 1600년~1909년 동안의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742년~1953년 동안의 농촌 이자율, 1700년~2000년 동안의 논 가격 및 생산성, 1701년~1909년 동안의 재화가격, 1713년~1937년 동안 조선 각지의 미가, 18~19세기의 산림황폐화와 농업생산성 등 조선시대의 장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 시계열들을 정리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식민지기에 들어오면, 근대적 통계조사가 시작되고 통계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막대한 통계를 정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사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쿠즈네츠는 근대적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특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실증 분석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근대적 경제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민소득을 추계하고, 이를 정보적 기초로 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민소득 추계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근대 시대에서 지속적인 근대성장의 시대로의 이행이 언제 이루어졌으며, 그 이행의 구조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진입하기 이전 시기까지 국민소득을 소급하여 추계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은 경제사가들의 연구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국민소득 추계로는 콜과 딘의 추계, 크래프트와 하리의 수정 추계 등이 있고, 추계치의 변화가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국민소득 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앞서 언급한 매디슨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은 아시아권의 역사통계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디슨의 전 세계 국민소득 추계 중 아시아 부분의 추계 작업은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이 허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방 이전 한국의 국민소득에 대한 히토츠바시 추계가 매디슨의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력도 작용하였습니다.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의 국민소득 추계 방법을 배우고, 그보다 더 나은 추계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식민지기 통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얻어진 성과가 2006년에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된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이라는 저서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의 한국 국민소득 추계에 관여한 연구원들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2008년에 동경대학출판회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국민경제계산 1910-1945』이라는 서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것과 해방 후를 연결하여 지난 100년간의 국민계정 통계를 정비한 성과는 2012년에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의 서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해방 전과 후의 통계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연결하려는 노력이 국민계정 이외의 다른 경제 및 사회의 각 분야로 확장되어 왔는데, 본서는 그 성과를 통계집으로 묶어 해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과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의 발간 의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은 식민지시기 조선의 경제통계를 정비하고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맞추어 국민계정 통계를 추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계작업은 과거에도 시도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Suh Sang-Chul 교수가 1978년에 Harvard Unniversity Press에서 출판한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와 1988년에 동양경제신보사에서 출판된 미조구찌(溝口敏行) 교수와 우메무라(梅村又次) 교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추계와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 추계는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가 출간되기 이전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는데, 자료나 추계방법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적지 않았습니다.『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에 수록된 국민계정 통계는 이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평가받아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던 1차 자료들을 널리 발굴하여 추계에 활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면밀하게 음미하는 과정에서 통계 조사 방법의 변경, 일부 통계자료의 낮은 커버리지(coverage) 문제, 과소신고 또는 중복게재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였으며,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내총생산(GDP)과 그에 대한 지출(GDE) 추계를 모두 제시하고, 두 추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계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터의 추계도 현재 UN이 권고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수로 통일하였고, 식민지기 통계를 가능한 한 한국은행의 현행 국민계정 통계와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은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인정하여, 히토츠바시 대학의 연구팀이 본 서를 일어로 번역하여 2008년에 동경대학출판부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국민경제계산 1910-1945』으로 출판한 바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의 개정판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을 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에서 국민계정을 추계한 기간은 1911년에서 1940년이었으며, 이를 해방 후 현행 통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작업을 더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첫째, UN은 1953년, 1968년, 1993년 세 차례에 걸쳐 국민계정체계(SNA)를 개편해 왔는데, 1993 SNA 이전의 통계를 현행의 기준에 맞추어 통일하는 일이었습니다. 식민지기 국민계정통계를 추계할 당시에 한국은행은 1968 SNA에 따르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에 수록된 추계는 거기에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은 1993 SNA로 이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해방 전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통계이며, 해방 후는 남한에 국한되므로 두 시기 통계의 커버리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기는 도별 통계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이 시기 GDP를 도별, 나아가 남북한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방 전후기(1941-52년)는 자료의 제약으로 국민계정을 추계하지 못했지만, 흩어진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면 이 정치적 격변기의 생산추이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국민계정 1911-2010』는 위에 언급한 과제를 수행한 성과를 담았으며, 가능한 경우 1911년부터 2010년에 걸친 장기국민계정통계를 제시하여, 제목도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는 장기통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업적을 소개한 후, 본 통계서에 수록된 통계 중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소득추계가 이루어진 과정을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와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가 나오기까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구지원을 해준 지원기관과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관과 연구과제명만을 소개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한국 장기경제통계의 수집, 정리 및 추계: 18-20세기의 인구, 가격, 산출, 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해방 전후 통계 공백기 경제통계의 정비, 추계 및 연결”,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한 “한국의 장기 역사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통계서 발간”입니다.

1-4 인터뷰: 편자와의 대담

(질문)

안녕하십니까? 앞에서는 한국의 장기통계가 구축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본 통계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국민소득추계를 주도하신 김낙년 교수님을 모시고, 본 국민소득추계가 보여주는 역사상, 그리고 장기역사통계 발간의 의의 등에 대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에 수록된 국민소득 추계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서에 수록된 국민소득추계가 보여주는 역사상은 어떠한 것인가요?

(답변)

본서의 추계 결과 중 몇 가지를 예시하면, 1911년부터 4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7%, 인구증가율은 1.3%로 나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9%의 광공업과 전기 건설업의 성장이 이를 주도하였고, 성장률 5%의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변화도 빨랐습니다.

지출 면에서는 무역과 함께 투자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의존도는 초기의 20%에서 1930년대 말에 60%에 달하였고, 투자율도 같은 시기에 5%에서 14%로 높아졌습니다. 민간소비지출은 연평균 3.3%로 증가하였는데, 인구증가를 감안한 1인당 증가율은 1.9%로 추계되었습니다. 곡물소비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타 음식물과 공업제품 등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구조변화는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비하면 그 속도가 느렸지만, 당시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조선후기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수준의 추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지표로 보는 19세기의 조선경제는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근대적 경제성장이라 이해한다면, 식민지기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기부터 근대적 경제성장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1940년부터 1950년대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등,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일시후퇴 또는 중단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시기의 추계치 속에는 조선거주 일본인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계정에서 파악되는 조선거주자란 민족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조선에 두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족간 또는 계층간 소득분배 실태는 국민계정통계에서 곧바로 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추가적인 추계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추계를 분석하여 보면, 이 시기에 민족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벌어져 불평등이 심해졌지만, 조선인의 1인당 평균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추론됩니다. 즉 조선인에 한정할 경우 성장과 구조변화의 속도가 위에서 제시한 수치보다는 느려지겠지만, 조선인 또한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예외로 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계된 식민지기 국민소득은 조선후기와 해방 후 시기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비록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자신들의 경제활동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 위에서 해방 후 한국경제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시기를 한국경제의 보다 장기적인 변화과정의 한 국면으로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식민지시기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판에 박은 듯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벗어나는 논의를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기의 인식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 역사교과서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도 살아 있는 정치외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기에 관한 평가는 더욱 민족주의적 이해나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본 추계의 결과도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받아들이는데 거북함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논리를 그렇게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일과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은 일제가 한국인의 의지에 반하여 주권을 침탈한 데 있는 것이지, 예컨데 이 시기 경제적 성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결부시켜 생각하기 쉬운 것은 식민지지배를 당한 아픈 역사가 아물지 못한 채 피해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시기를 객관적인 눈으로 담담하게 바라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종래의 논의가, 예컨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모적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질문)

한국의 장기통계는 22명의 학자가 참가해서 22개 분야의 장기통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통계의 정비가 한국의 연구 상황에서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답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경제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근대초기로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이후 전통사회에서 식민지체제로,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통계자료의 상황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일관된 장기통계를 만드는 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분단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기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해방 후와 직접 비교하거나 연속적으로 파악하는데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 식민지기, 해방 후의 각 시기에 관한 연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일이 없이 단절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장기통계는 자료 면에서 다른 시기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래 개별시기에 국한된 연구시각을 보다 장기적인 맥락 속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둘째, 식민지지배와 분단이 장기통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주었지만, 발상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로인해 의도치 않게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한 여러 차례에 걸친 체제전환의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사회가 급격한 개방의 충격에 노출된 개항기, 외래권력에 의한 식민지체제로의 재편, 해방 후 다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각 시기는 체제와 제도가 달랐으며 경제적 성과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제도 또는 체제변화와 경제성장 또는 사회변화간의 다양한 관련을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장기통계가 정비되어 근대이후의 각 시기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면, 연구의 시야를 제도와 체제이행의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 연구자 중에서도 전공시기에 따라 연구가 단절되어 있음을 지적했지만, 유사한 상황은 경제학과 경제사연구자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한 이들 한국경제연구는 대체로 1960년에서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로 한정되며, 그 이전 시기로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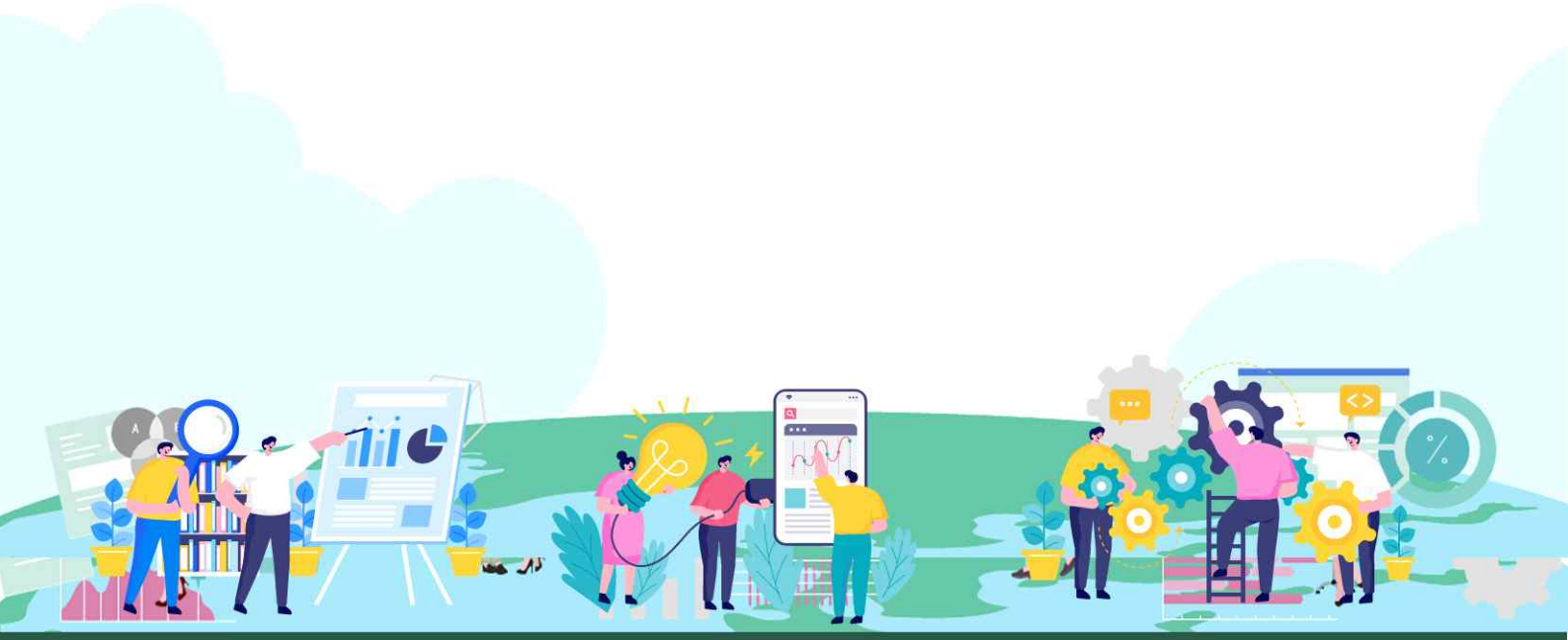
그 결과 한국의 고도성장을 당시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는 경향에 빠지게 되고 역사적 규정성이나 제도변화의 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연구의 관심이나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역시 자료상의 장벽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장기통계라는 인프라가 정비되면 전공 시기나 관심이 다른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서로 접근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장기통계 I>>과 <<한국의 장기통계 II>>의 공동편집인이신 김낙년 교수님을 모시고, 본 통계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국민소득추계가 보여주는 역사상, 그리고 장기역사통계 발간의 의의 등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

Significance of Publishing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1-1 Book Structure, Goals and Schedule of Lecture

Hello, everyone. This is Yi Taek Park who is lecturing on Korea's Long-Term Statistics I lecture.

This lecture is about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I>> and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II>> published in 2018. Those books, published in two volumes, are the result of the collaboration of 22 majors. I participated as the co-editor of this book and the author of two chapters.

These two books cover 22 fields ranging from natural environment and population to labor force and wages, various industries and trade, finance and banking, national income and price, as well as education, health, corporate organiz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law. Long-term statistics of Korea from the early 20th century to the present are presented and explained so that the changes in the economy and society since modern times can be viewed through long-term statistics.

First of all, let me tell you about the structure of the book and the lecture schedule.

This book has 22 chapters. In terms of chapter titles, nature and geography, population, labor force, wages, education, health,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construction and hous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utilities, national income, prices, capital and wealth, These ar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e organization, money and financial systems,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law, foreign trade and exchange rates. Of these 22 chapters, the first 11 chapters were published as Volume 1, and the latter 11 chapters were divided into Volume II.

These 22 chapters cover all areas necessary for scanning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 will explain each chapter's positio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with a schematic diagram of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First, let me explain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the schematic diagram of macroeconomic performance. Let's look at <Schematic 1>.

A country's producers purchase capital, land, and labor from households to make products, and these products are used for intermediate goods demand, private consumption, government spending, investment demand, and exports. Profits from the sale of products are distributed to the owners of factors of production in return. In return for providing factors of production, households receive wages, rent, and interest, some of which are paid to the government as taxes, and the rest of them is used for private consumption and household savings.

Private household savings and overseas savings brought in from abroad become sources of investment, and the capital thus formed enters into a factor of production. Except for exports and overseas savings in the above explanation, all of them take place domestically, and the trade of goods and capital with foreign countries is made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 country's macroeconomic performance is the result of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ational economic cycle,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from country to country.

From now on, let me explain what chapter has connected the sector by using a schematic diagram of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Let's look at <Schematic 2>.

It i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underpins a country's national economic cycl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chapters about nature, geography, and the law of this book under this category.

The national economic cycle is centered on the product market and the factor market, and the product market can be divided by economic activity. In this book, economic activities are divided into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construction and hous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public utilities, all of which are product markets. The factor market is a market in which labor, capital, and land are traded. Under the technology of a country, factors of production are converted into products, and the related chapters are labor force, capital and wealth,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producers, households, and the government for economic activity, in case of producers, business organizations chapter deal with them, and for the government is dealt with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chapter. In the case of households, the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and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are carried out using income, including wages, as a financial source, and the corresponding fields are wages, population, education, and health chapter. Capital used as a factor of production is formed through investment, and the chapters related to savings and investment activities are money and financial institutions chapter.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s also important to economic performance. Related chapters are foreign trade and exchange rates. Macroeconomic performance is the overall result of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the chapters related to macroeconomic performance are national income and prices.

Above, 22 chapters are arranged in one place for convenience, but it is clear that each chapter does not actually belong to only one part. Its intricate details cannot be explained at once. Let me explain this when necessary in each chapter during the lectures.

As explained above, Chapter 22 of this book covers all fields necessary for a bird's eye view of the national economic cycl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Now, I will explain the structure of each chapter. Each chapter consists of explanations and statistical tables. The commentar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atus of statistical data in the field and serves as a guide for researchers who want to use historical statistics in this field. And the authors tried to show what kind of change has occurred in the field by illustrating a long-term trend graph that the authors think is important.

Statistical tables are primarily time-series statistics that show long-term changes, but contain some non-time-series statistics as well. The number of time series in each chapter varies considerably from chapter to chapter. The chapter with the smallest number of time series contains 205 time series and the chapter with the largest number of time series contains 952 time series, providing a total of about 10,000 time series statistics in the book. These time series statistics are uniquely numbered for convenience.

Each chapter had been tabulated and commented on by experts in the field. In some cases, one expert wrote one chapter, but in other cases, two or three people together made a statistical table and wrote a commentary. This book has 22 chapters, and the number of authors is the same. Coincidentally, the number of chapters and the number of authors are equal.

The reason why 22 people gathered and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preparing such a statistical report was because the authors thought that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such work was very high. Let me tell you about its significance.

It is not easy for researchers to find and use statistics they want in unfamiliar fields beyond their majors. Researchers run into a similar problem when they want to go back in time and use statistics. For example, when studying the modern economy, it is rare for economists to approach the modern econom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clud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or even before liberation.

Even economic history researchers are not willing to deviate from the period in which they majored. This is because, in particular, in Korea,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data by period, which is as a barrier to entry among academic fields. A typical barrier is the language barrier. In order to study before the 19th century, you must be familiar with Chinese characters. In order to study the colonial period, which is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you must be familiar with Japanese materials. In recent years, fewer researchers have proficient deal with Chinese and Japanese materials, so the language barrier seems to have increased. As a result, economics and economic history studies are conducted separately without exchange. The situation in other fields of study is not much different.

The reason 22 people wrote a statistical book covering 22 fields was to provide a long-term statistics infrastructure that anyone can use easily by lowering the barriers. Users of this statistic will be able to find out what kind of trends the indicators they are interested in in each field of economy and society have followe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And although changes in one field may be affected by changes in other fields,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book can trigger research to find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re is among them.

Furthermore, the setting in good condition for long-term statistics makes it possible to compare the entire development path of each country, thereby broadening the horizon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quantitative research on how Korean society has changed over the past century, how i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nd what factors are in each field of Korean history and social sciences will be promoted.

Although this statistic was created for the same purpose as above, it is not as easy as you might think to understand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statistic and use it smoothly because this book deals with so many statistics. In order to use these statistics wel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kind of statistical survey these statistics are from and what characteristics the statistical survey has, as well as understanding long-term changes in the field covered by the statistics is helpful.

So far, I have let you know about the structure of the book, and the lecture goals and schedule. Afterwards, we will look at the status of long-term statistics building in foreign countries, the journey of long-term statistics building in Korea, and the excellence of Korea's long-term statistics and the significance of publication.

1-2 The Status of long-term statistics in foreign countries: Groningen University and Hitotsubashi University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set long-term statistics for a long time. A few notable examples are the British Historical Statistics compiled by Mitchell, published in the UK in 1988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is historical statistics book consists of 16 chapters, which introduce the table of contents of the chapters: population and demographic statistics, labor force, agriculture, fuel and energy, metals, textiles, buildings, other industry statistics, foreign trade,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ublic finance,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ption, prices, other statistics, and national accounts.

In the case of Jap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Estimates and Analysis, consisting of 14 volumes edited by Kazushi Okawa, Miyohei Shinohara, and Mataj Umemura, was published by Dongyang Economic Daily from 1965 to 1988. Let me introduce the titles of the volume; national income, labor force, capital stock, capital formation, savings and currency,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fiscal expenditure, price,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textile industry, railway and electricity, regional economic statistics, trade and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For the United States, the five-volum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Earliest Time to the Present: Millenium Edition, edited by Susan Carter et al., was published in 2006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ume 1 covers 7 topics related to population, Volume 2 covers 7 topics related to labor and welfare, Volume 3 covers 9 topics related to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Volume 4 covers 8 topics related to the economic sector 8 topics related to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Volume 5. This historical statistics book presents more than 37,000 statistical series on 39 broad topic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and it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set in condition for historical statistics. Korea's long-term statistics refer to the structure of this statistical report.

In addition to the statistics presented above, there are two types of statistics worth noting. First,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ublished by the OECD in 2003 by Maddison, which is not a statistical book for all fields of a country, but has a great influence on economic history and economics. This book is an estimate of the historical trends of the population and GDP of each country around the world, and it is a book that has served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economy.

Second, Asi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estimation work is being carried out by Hitotsubash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hich built Japan's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Estimates and Analysis" database. The results of this estimation work will be published in 12 volumes. Let me introduce the titles of the volumes ; Taiwan, Vietnam, China, Korea/North Korea, Thailand, India/Pakistan/Bangladesh, the Philippines, Turkey/Egypt, Russia, Central Asia, and Japan. In 2019, the fourth volume of Asi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Korea and North Korea, was published.

Let me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the Maddison Project and Asi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including their relation to this statistical report.

Angus Maddison is a British economist who was born in 1926, and gained a worldwide reputation for his research comparing the economic size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ter *Anno Domini,* and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is his masterpiece.

He died in 2010, and before his death he continued to update the world population and GDP data he had built up. Even after his death, his work continues to update his database at the University of Groningen under the so-called Maddison Project. The statistics related to Korea included in the Maddison Database were originally estimated by Hitotsubashi University, but the most recently constructed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contains data from the book with Korean statistics. I can tell that the excellence of the statistical data contained in this statistical report of the book has been recogn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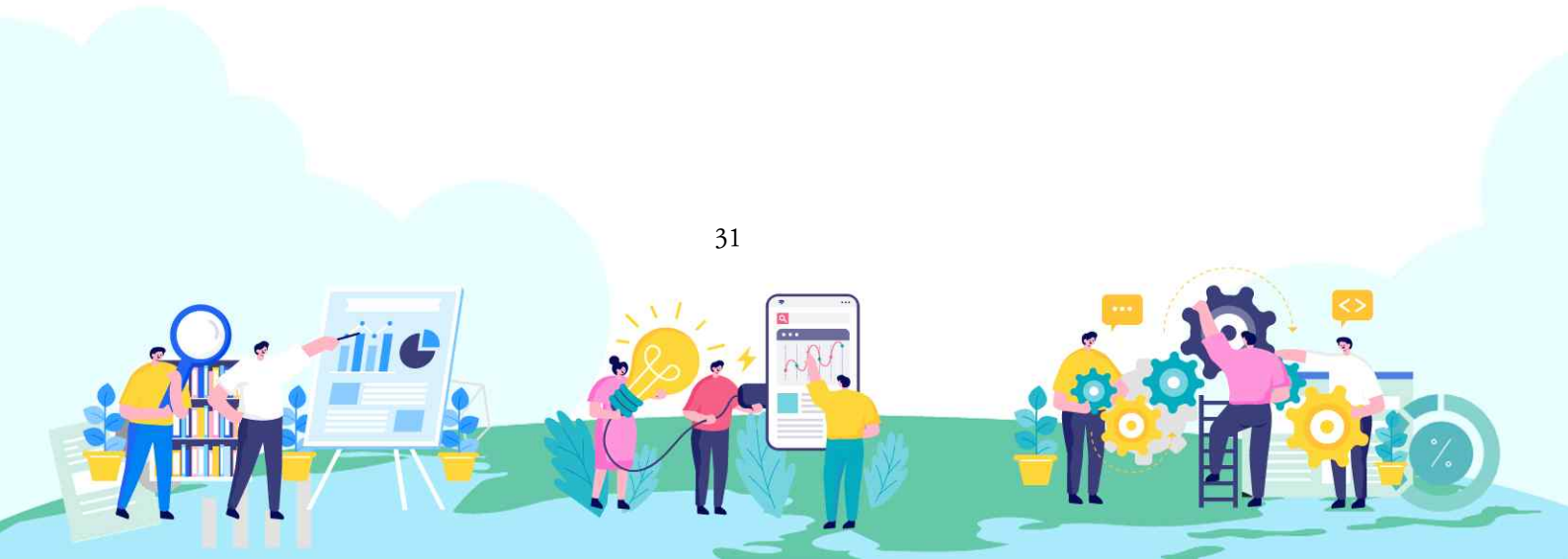
As mentioned earlier, Hitotsubashi University published 14 volumes of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Estimates and Analysis』 from 1965 to 1988. This statistic is a statistical document that collects time series data on the Japanese economy since the Meiji era,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makes independent estimates for each field, and calculates Japan's Gross National Product and Gross National Expenditure on the basis of the data.

Using this research as a model, Hitotsubashi University has been working to build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for various Asian countries, and as a part of this, the 4th volume of Asi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Korea and North Korea, was published in 2019. The preface of this book describes that many references were made to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which contains the estimated results of national income included in this statistic, and related research results.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Hitotsubashi University in Japan is a research institute that plays a role as a hub in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in Asian countries.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put a high value on long-term statistics and have put a lot of effort into it, and have published their own long-term statistics. This statistical book is also published for the same purpose.

However, there is no meaning in publishing statistics. It is very important how the data is evaluated internationally. In the case of the national income reported in this book, it is highly regarded by the University of Groningen, which is updating the Maddison Project Database, and Hitotsubashi University as a hub for establishing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in Asia .



1-3 The building journey of Korea's historical statistics

This book was published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Korea's long-term statistics. I would like to introduce a little bit of the progress.

First, for the late Joseon period, where modern statistical surveys were not conducted, work was done to collect and organize scattered micro-data such as the diaries and household books of nobles, harvest and land sales documents, accounting-related data for winter and monsoon seasons, and genealogy. Long-term trends such as population, agricultural production or rent volume, wages and prices were estimat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in 『Farmers of Mat-Jil』 published in Iljogak in 2001 and 『Quantitative Economic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pu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n 2004. ."

『Farmers of Mat-jil』 is a book published by collecting research papers that analyzed data from the 1830s to the 1950s, such as the diaries left by the Hamyang Park clan, who lived in Jegok-ri, Yongmun-myeon, Yecheon-gun, Gyeongsangbuk-do, and the daily use, boje-gi, and bujo-gi, Structure and fluctuations of the goods in rural market, the price of goods and prices in rural areas, the trend of agricultural wages, the trend of landowner management for wealthy villagers, the composition of social status and self-government order, the credit and accountability of rural society, the exchange of gifts in the rural society, the rate of death in seasonal distribution, changes in time, and changes in land ownership structure, this is the first study on the history of village life in the modern era in Korea that comprehensively empirically analyzes the traditional society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is book shows the time series of various production, price, wage, and interest rates from the 1840s to the 1930s in the Yecheon region.

The period before 1905 can be said to be the so-called 'era of pre-statistics', in which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were not systematically investigated by public authorities, and it is an example of a village in Yeocheon from 『Farmers of Mat-jil』,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microscopic data left by various economic ag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even in the 'era of traditional statistics',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meaningful long-term time series that can understand the long-term fluctuations of Korea's socioeconomic status.

In fact, there are many microscopic data that contain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long-term fluctuations in the social econom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quality of food in Yongmun-myeon, Yecheon-gu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plan of the Mun clan in Jangam-ri and the plan of the Lee clan in Mangho-ri, which includes various economic information including rice prices in Yeongam, Jeollanam-do, spanned from 1744 to 200 years, and the kin in Gurim-ri, Gunseo-myeon comes from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o the present. In addition, there is the plan of Yongsan Seowon and Bangeo-ri in Gyeongju, the plan of the Yun clan in Namhae, Jeolla-do, the plan of the Lee clan in Andong, Gyeongsang-do, the catalog and Jeon Yeogi of Oksan Seowon in Gyeongju, the diary of a nobleman Shim clan of Ulsan for 60 years from the 1870s, the documents of Gukgu Seowon in Ulsan, the plan of the Lee clan in Namwon, the diary of the Jeong clan of Buyeo, the plan of the Lim clan in Yeongi, and the vast amount of land sales documents of more than 10,000 copies stored in Gyujanggak and 400 types of Uigwe.

『Late Joseon Dynasty re-observed as Quantitative Economic History』 is a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that collected these data and built time series data that can make researchers understand long-term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is the 'era of pre-statistics'. This book covers the demographic change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wages of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in Seoul from 1600 to 1909, the rural interest rate from 1742 to 1953, rice paddy prices and productivity from 1700 to 2000, various long-term time series that show long-term fluctuations in the Joseon Dynasty, such as the price of goods from 1701 to 1909, the rice price of various parts of Joseon from 1713 to 1937, and forest degrad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re summarized and presented.

In the colonial period, modern statistical surveys began, and statistical information increased dramatically. Compiling huge statistics was a big deal, but how to organize them was also important. Kuznets, regarded as the father of economic history, created the concept of modern economic growth,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economic growth, and created an empirical analysis system that could deepen understanding, and then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estimate the national income.

After World War II, most countries estimated their national income and, based on this informatio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conomic policie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only by estimating the national income after World War II, for example, when the transition from the pre-modern era, when economic growth was not achieved, to the era of continuous modern growth was made, and the structure of that transition.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trospectively estimate the national income before World War II and before entering into modern economic growth, and this work has been left as a research task for economic historians. Estimates of national income before an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include Cole and Dean's estimates and Kraft and Hari's revised estimates, and it is well known how these estimates changed Britain's understand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Maddison, who left a big mark on historical estimates of national income. However, Maddison was unfamiliar with historical statistics in Asia, so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Hitotsubashi University in Japan served as a hub for Madison's estimation of the Asian part of the world's national income estimate. The Hitotsubashi estimate of Korea's national income before liberation was included in Madison's database and also played a role in this history.

To learn how to estimate the national income of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Hitotsubashi University in Japan, and to make a better estimate than that a book titled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was published by being promoted the work of compiling the statistics of the colonial period. This book was translated by researchers involved in the estimation of Korean national income at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Hitotsubashi University in Japan, and it was published under the title of 『National Economy Calculation of Colonial Joseon 1910-1945』 by Tokyo University Press in 2008. The result of arranging the national account statistics for the past 100 years by connecting this book with the post-liberation period was publish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 Cultural Center under the title of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10』.

Efforts to link the statistics of the liberation times as consistently as possible have been extended to other fields of economy and society other than the national account, and this book can be a summary of the achievements as a statistical coll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 of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and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10).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is an estimate of the national account statistics which reorganizes the economic statistics of Jose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

Representative studies include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 by Professor Suh Sang-Chul, publish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in 1978, and 『*Old Japanese Colonial Economic Statistics: Estimates and Analysis*』 co-edited by Professors Mizoguchi and UmeMura, published by Dongyang Economic Daily in 1988.

These estimates were widely used internationally before the publication of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and there was a lot of things for supplementation or improvement in data and estimation methods. National Account statistics in the book have several matters to be evaluated when compared with these previous studies.

First, primary data that were not used in previous studies were widely discovered and used for estimation. In the process of closely examining statistical data, problems such as changes in statistical survey method, low coverage of some statistical data, under reporting or duplicate publication were reviewed and necessary supplements were made, unlike previous studies, the gross domestic product The point is that estimates of both GDP and GDE have been presented, and the estimation method has been improved to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the two estimates. In addition, the deflator estimate was unified into the most ideal index currently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istics of the colonial period were made accessible to the current national account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 as much as possible.

The excellence of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was recognized by , and the book was translated by the research team from Hitotsubashi University and was published as 'National Economy Calculation of Colonial Joseon 1910-1945 by Tokyo University Publisher.

In 2012,『National Accounts of 1911-2010)』,the revised edition of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was published. In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the period for which the national account was estimated was from 1911 to 1940, and three things needed to connect with the current statistics after the liberation.

Firstly, the UN had reorganized the National Accounts System (SNA) three times in 1953, 1968, and 1993, and it was to unify the statistics prior to the 1993 SNA according to the current standards. At the time of estimating the national account statistic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Bank of Korea followed the 1968 SNA, so the estimates in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were followed by it. However, since the transition to the 1993 SNA was completed for the Bank of Korea's national account, it was necessary to reorganize by the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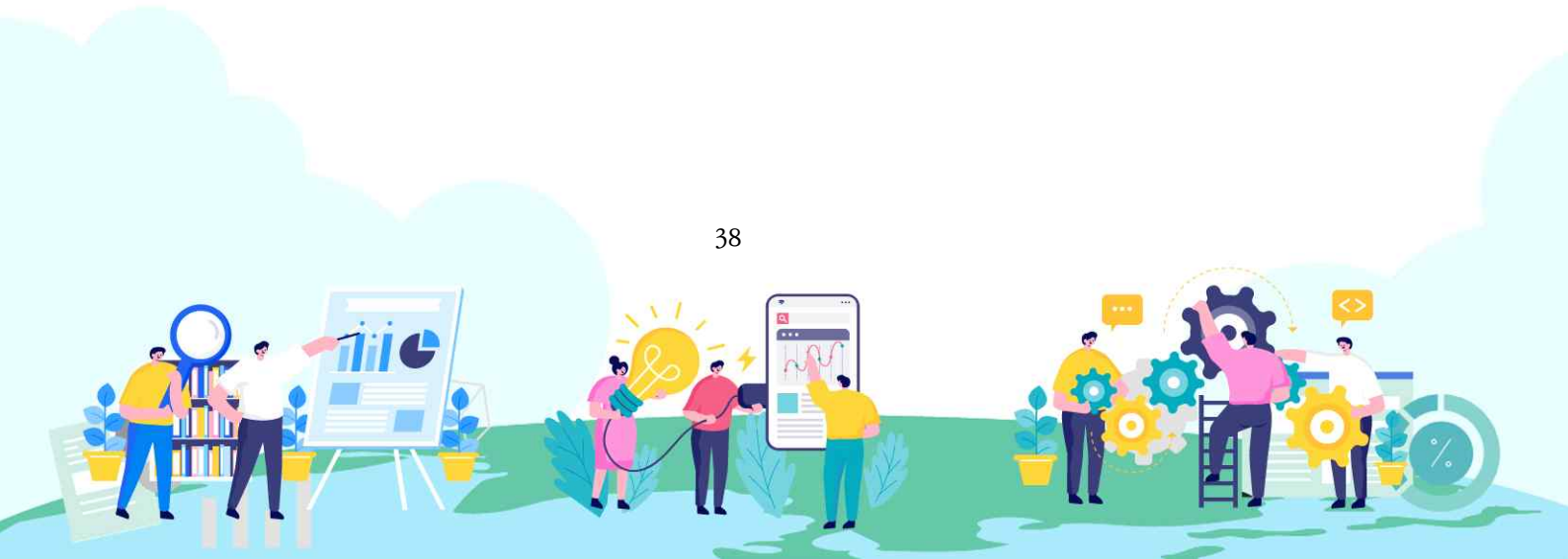
Secondly, it was necessary to match the coverage of the statistics of the two periods because before the liberation statistics is the statistics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 and after the liberation, statistics is limited to South Korea. Since the statistics by province remain relatively abunda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is possible to divide the GDP during this period into provinces and further into North and South Korea.

Thirdly, it wa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national accounts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1941-52) due to data limitations, the production trend during this political upheaval can be restored to some extent by excavating and organizing scattered materials.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10)』contains the achievements of carrying out the above-mentioned tasks, and, if possible, presents long-term statistics on the national accounts from 1911 to 2010.

So far, after introducing major achieve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statistics, the process of national income estimation, which is highly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among the statistics included in this statistical report, was made in 『Korea's Economic Growth 1910-1945』 and 『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10)].

There was much support until the publishing of National Accounts of Korea. The names of the supporting institutions and research projects that provided research support are as follows.

"Collection, arrangement, and estimation of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in Korea: Focusing on population, price, output, and income statistics in the 18th and 20th centurie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by introducing only the supporting institutions and research project name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se are "Maintenance, estimation, and connection of economic statistics during the post-liberation statistical vacuum period" supported by this, and "Construction of a long-term historical statistical database and publication of statistic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4 Interview: Conversation with the Co-editor

(Question)

Hello? I let introduced you the journey for building up Korea's long-term statistics. Now, with Professor Nak-nyeon Kim who led the national income estimate, which is the most highly evaluated in this statistical paper, and we will talk about the history shown by this national income estimat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 of long-term historical statistics.

The estimates of national income included in this book are highly regard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What i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national income projections in this book?

(Answer)

To exemplify some of the estimates in this book,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from 1911 to 40 years was 3.7%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was 1.3%. The growth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electricity and construction industry,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9%, led this, followed by the service industry with a growth rate of 5%. As a result, structural changes were also rap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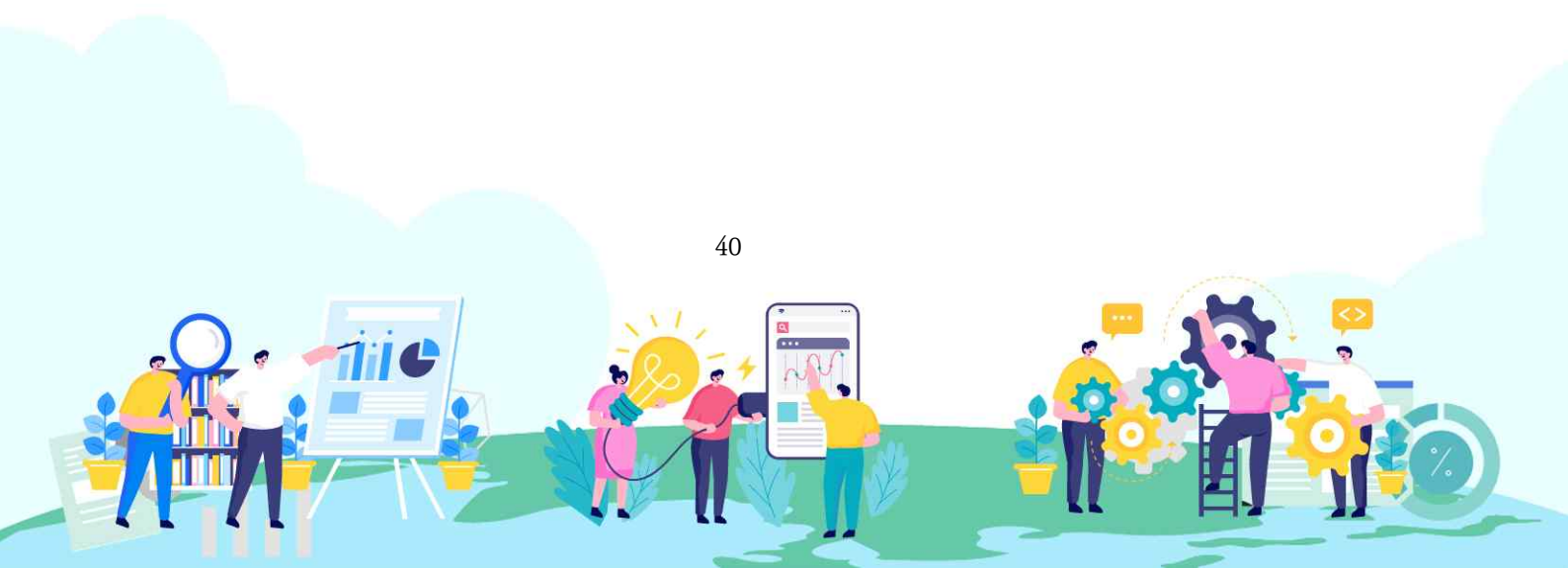
In terms of spending, growth was driven by an increase in investment along with trade. The dependence on trade reached 60% at the end of the 1930s from 20% at the beginning, and the investment rate also increased from 5% to 14% at the same time.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3.3%, and the growth rate per capita was estimated to be 1.9%, taking into account the population growth. Grain consumption decreased slightly, but consumption of other foodstuffs and industrial products increased.

This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as slow compared to Korea's high-growth period, but it was quite fas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t the time. As for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impossible to expect such an estimation, but it seems that the 19th century Joseon economy was stagnant based on the indicators revealed so far.

When the phenomenon of continuous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is a modern economic growth, the modern economic growth star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r just before it. However, the process was temporarily retreated or stopped due to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such as the liberation,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n the 1940s and 1950s, and then accelerated after the 1960s.

The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Japanese living in Joseon was included in the estimate for the colonial period. This is because Joseon residents identified in the national account are set not by ethnic standards, but by whether the “center of economic interests” is placed in Joseon. As it is now, the actual state of income distribution between ethnic groups or classes cannot be obtained directly from national account statistics, and additional estimation work is required in the future.

However, when analyzing this estimate, it is inferred that the average income per capita of Koreans increased while inequality increased due to the widening of the income gap between ethnic groups and classes during this period. In other words, When it is limited to Koreans, the speed of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ill be slower than the figures suggested above, but Koreans were not left as exceptions in this change process.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newly estimated national incom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this stud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comprehends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post-liberation period. Although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lonial period was led by the Japanese, it is also the result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Koreans themselves in Joseon. And on the economic legacy, the Korean economy started after the liberation. In that sense, the colonial period can be regarded as one phase of the longer-term process of change of the Korean economy.

The general public's stereotypical conception of the colonial period is consistent. It is not much different in academic field, so people do not want to allow to discuss beyond the percepti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perception of this period are not simply issues of the past, but such as the history textbook disputes, it is a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the evaluation of the colonial period is depending on nationalist interests or political judgments.

For example, the results of this estimate that modern economic growth occurred during this period may be criticized because of logic justifying colonial rule. At least it may feel bad to accept. But there's no need to jump in logic. This is because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economic phenomena that appeared during this period and criticizing the injustice of colonial rule, which are two different things. The unfairness of colonial rule lies in the Japanese imperialism's usurpation of sovereignty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s, and for example, it can not depend on the good or bad of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is period.

Nevertheless, it is easy to think of linking the two because the painful history of colonial rule has not healed and a sense of damage remains. This can be an obstacle to understanding at this period with an objective view. It is for this reason that conventional discussions, as seen in the debates of ‘exploitation theory’ and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for example, are attritted.

(Question)

In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22 scholars participated and built long-term statistics in 22 fields. What significance would such long-term statistics setting in a good condition have in Korea's research context?

(Answer)

There are three meanings.

Firstly, the range of research on the Korean economy can be expanded to the early modern period. After modern times, Korea changed from a traditional society to a colonial system, and after the liberation, Korea was divided two.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creating consistent long-term statistics because the statistical data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ch period. The division aggravated such difficulties.

Also, since the colonial period was dominated by foreign peoples, there was a psychological resistance to directly comparing this period with post-liberation. As a result, research on the late Joseon Dynasty, colonial period, and post-liberation period was cut off without sharing a critical mind or interacting with each other. Long-term statistics lower the barriers to entry into different periods in terms of data and allow economic changes in each period to be compared with each other, allowing us to review the research perspective limited to individual periods in a longer-term context.

Secondly, colonial rule and division made it difficult to create long-term statistics, but there was an unintentional experiment with system change in several times that had not happened in other countries. These are the period when the traditional society was exposed to the shock of rapid open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colonial system by foreign powers, and the transition back to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system after the liberation.

Each period had a different order and system, and there was also a big difference in economic performance. In this way,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as abundant examples showing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or system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or social change. When long-term statistics are prepared and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period after the modern era is possible, the scope of research can be broadened to include issues of institutions and system implementation.

Thirdly, the research is cut off according to the research period of historians, but a similar situation can be happening among economics and economic history researchers. In the past,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has caugh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se studies on the Korean economy, mainly by economists, are generally limited to the period of high growth in the 1960s and 1970s, but the studies had not been extended to the period before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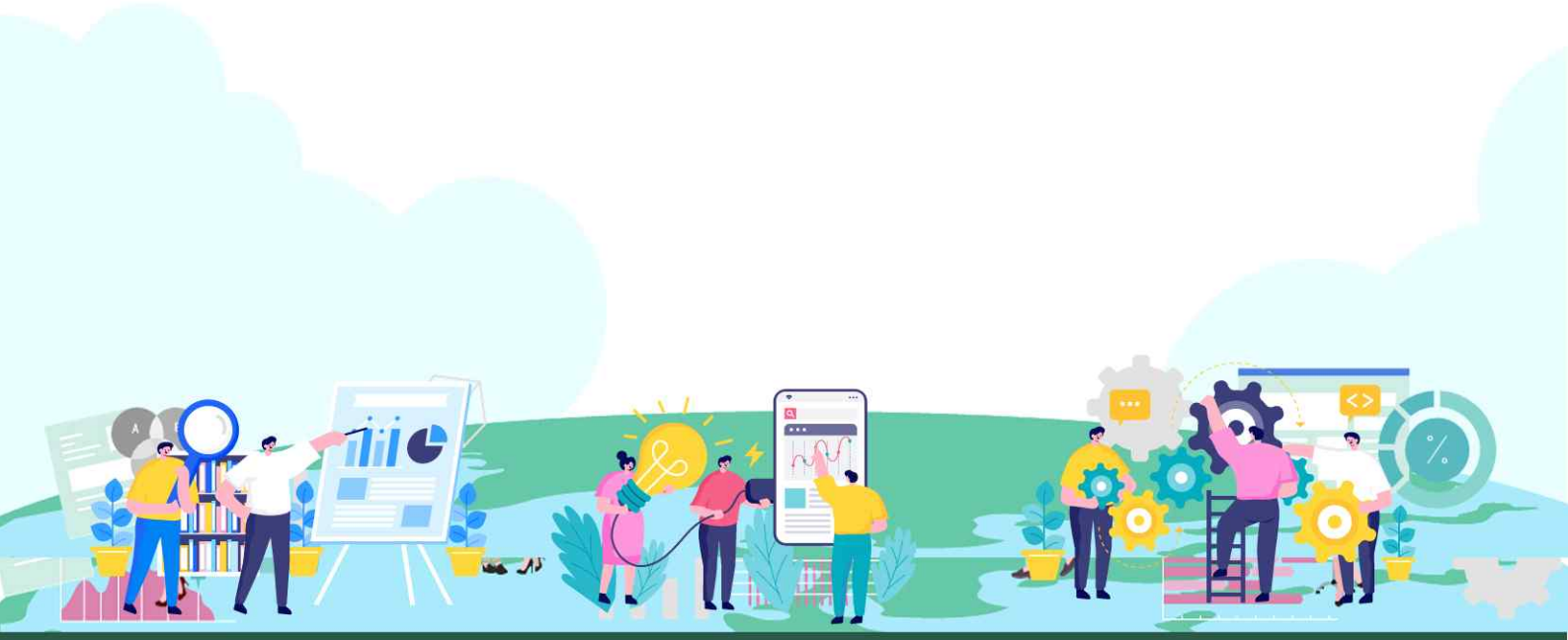
As a result, a tendency to explain Korea's rapid growth by limiting it to factors at the time was shown, and it could not make the studies consider factors of historical regulation or institutional change. There are differences in research interests and methods, but the data barrier was a big reason as well.

When long-term statistics is established, researchers from various backgrounds with different majors and interests can approach and exchange with each other.

With Professor Nak-nyeon Kim, co-editor of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I>> and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II>>, the history and long-term historical statistics shown by the highest-rated national income estimate in this statistic were published. We talked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Thank you.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1周 出版韩国长期统计的意义

1-1 著作的构成以及授课日程

各位学生，大家好。我是负责《韩国的长期统计I》课程的朴二泽。

这个课程是关于2018年出版的《韩国长期统计I》和《韩国长期统计II》的课程。韩国长期统计分两卷出版，是22名专业人士共同编著的成果。我本人作为共同编辑兼其中两章的编者参与了这本著作的编写。

这两本著作涵盖了自然环境和人口、劳动力和工资、各种产业和贸易、财政和金融、国民收入和物价、教育、健康、企业组织、科学技术、司法等22个领域，旨在通过长期统计全面了解近代以后经济社会的变化，提出并解释从20世纪初开始到现在，关于我国的长期统计。

首先我介绍一下这本著作的构成和授课日程。

本著作共分为22章节。各章节的题目分别为：自然和地理、人口、劳动力、工资、教育、健康、农业、天然资源、建设和住宅、制造业、物流、交通和通讯、服务业和公共事业、国民收入、物价、资本和财富、科学技术、企业组织、货币和金融制度、政府财政和雇佣、司法、对外贸易和汇率。在这22个章节中，首11个章节被收录在第一卷、后11个章节被收录在第二卷。

这22个章节涵盖了鸟瞰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所需的所有领域。我们将用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的模式图来讲解每一章与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的关系。

首先，我将解释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的模式图。让我们来看看<模式图1>。

一个国家的生产者从家庭购买资本、土地和劳动来制造产品，该产品用于中间再需求、民间消费、政府支出、投资需求、出口等。产品销售的收益作为代价分配给生产要素所有者。家庭作为提供生产要素的代价，获得工资、地租和利息等，其中一部分作为税金交给政府，其余的用于民间消费和家庭储蓄。

民间的家庭储蓄和国外储蓄是投资的源泉，从而形成的资本进入生产要素。在前面说明中，除了出口和国外储蓄外，都是在国内实现的，这样在国内实现的经济循环可以称为国民经济循环。而且与外国的商品及资本交易是国际分工的一部分。

一个国家的宏观经济成果是国民经济循环和国际分工的结果。每个国家的国民经济循环和国际分工、宏观经济成果都存在相当大的差异，自然环境和制度环境的差异是导致这种差异的原因之一。

现在利用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的模式图来说明各章属于哪个部门。让我们来看看<模式图2>。支撑一个国家的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的是自然环境和制度环境，包括本著作中的自然、地理和司法。

国民经济循环是以产品市场和生产要素市场为中心形成的，产品市场可以按经济活动划分。本著作中的经济活动分为农业、自然资源、建设和住宅、制造业、流通、交通和通讯、服务业和公益事业等，这些都属于产品市场。生产要素市场是劳动、资本和土地交易的市场。一个国家拥有的技术下，生产要素转换成产品，与此相关的章节是劳动力、资本和财富以及科学技术。

经济活动的主体包括了生产者、家庭和政府，我们将会在企业组织章节内讨论到生产者，而在政府财政和雇佣章节内讨论政府。至于家庭，以工资等收入作为财源，实现人口的再生产和人力资本，这些内容会在工资、人口、教育和健康的章节内讨论。生产要素的资本是通过投资形成的，与储蓄和投资相关的内容会在货币和金融制度的章节内讨论。

在经济成果的方面，国际分工也很重要。跟这个有关系的章节是对外贸易和汇率。概括到国民经济循环和国际分工的结果是宏观经济的成果，与宏观经济相关的章节是国民收入和物价。

为了方便起见，我们将22个章节分别放在一个地方说明，但实际上，每一章并不只属于一个部分。我们无法在这里解释所有复杂的细节。对此，我们将会在不同的课堂上根据需要说明各个章节。

如上所述，本著作的第22章涵盖了国民经济循环和宏观经济成果所需的所有领域。

下面介绍一下各章的构成。每一章由解说和统计表所组成。解说中包含了相关领域的统计资料，然后对想要使用该领域的历史统计的研究者起到了一个指南作用的内容。并且会举例认为重要的长期趋势图表，展示相关领域发生了怎样的变化。

统计表基本上以能够看到长期变化的时序列统计为中心，但也包含了一些不是时序列的统计。每个章节收录的时序数目都有相当大的差异，时序数最少的章节收录205个时序，最多章节则收录952个时序，合计约1万个时序统计。这些时间序列统计被赋予固有编号以方便使用。

各章由该领域的专家负责制作图表并写解说。虽然也有一名专家独自编写一个章节的情况，但也有两人或三人一起制作一个章节的统计表并进行解说的情况。这本著作共有22个章节，编写人数也相同共22人。偶然的是，章节的数量和编写人数相同。

22位专家聚在一起花费相当长的时间编写这样的统计书，是因为大家都认为这项计划的学术意义非常重大。让我说说这个意义吧。

不仅是普通人，研究人员在其专业以外的领域寻找或使用想要的统计数据是一件不容易的事情。追溯到过去，当我们想要利用统计时也会遇到类似的问题。例如，经济学家研究现代经济时，从包括高度增长期和解放前在内的长远角度看待现代经济的情况非常罕见。

经济史研究者们也不想轻易摆脱自己主要研究的时期。这是因为，特别在韩国，各时期的数据资料存在很大的差异，这成为了门槛和障碍。最具代表性的障碍是语言的障碍。为了研究19世纪以前，必须熟悉汉文的资料。为了研究20世纪殖民地时期，则必须熟悉日文的资料。到了最近，能够熟练接触汉文资料和日语资料的研究者越来越少，语言的障碍也越来越高。因此，经济学和经济史研究几乎在没有交流的情况下单独进行。其他学科领域的情况也大同小异。

22人制作涵盖22个领域的统计书籍，是为了降低前面所说的障碍，提供任何人都可以轻松使用的长期统计基础设施。本统计书籍的使用者可以找到自己在经济社会的各个领域所关心的指标在解放前后都遵循了怎样的趋势。另外，一个领域出现的变化也会对其他领域的变化产生影响或受到影响，本书籍提供的数量信息可能会引发解析他们之间有什么关联的研究。

此外，长期统计的整理使各国发展路径得以比较，比较国际的地位也随之扩大。因此，期待韩国社会在过去一个世纪里在韩国史和社会科学的各个领域发生怎样的变化，与外国有什么不同，以及这些因素是什么能够促进相关数量的研究。

虽然以上述目的制作了本统计书籍，但由于涉及庞大的统计，所以理解统计书的整体构成并灵活使用并不像想象中那么容易。为了更好地利用这些统计资料，不仅需要理解这些统计资料来自什么样的统计调查、统计调查具有什么样的特性，而且理解统计所涉及领域的长期变化也有帮助。

到目前为止,我们已经谈到了书籍的构成和课程目标及日程。以后，我们将会探讨外国的长期统计数据的构筑现况以及韩国的长期统计数据构筑的旅程、还有韩国长期统计的优秀性和出版的意义等等。

1-2 外国的长期统计构建现况：荷兰格罗宁根大学和日本一桥大学

主要发达国家从很早以前就开始努力整理长期统计数据。举几个典型的例子，譬如在英国，1988年由剑桥大学出版社出版，米切尔（Mitchell）编辑的《英国历史统计》(British Historical Statistics)。该历史统计书由16个章节组成，介绍的章节目录如下：人口及人口动态统计、劳动力、农业、燃料及能源、金属、纤维、建筑、其他产业统计、对外贸易、运输及通讯、公共财政、金融机构、消费、价格、其他统计和国民账户。

在日本，由大川一司、篠原三代平和梅村又次编辑了14卷组成的《长期经济统计：推算和分析》，于1965年至1988年由东洋经济新报社出版。如果只介绍各卷的题目，就是国民收入、劳动力、资本股份、资本形成、储蓄和货币、个人消费支出、财政支出、物价、农林业、工矿业、纤维工业、铁路和电力、地区经济统计、贸易和国际收支。

美国的情况，由苏珊卡特（Susan Carter）等编辑的第5卷《美国历史统计,早年到现在：千禧年版本》(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Earliest Time to the Present:Millenium Edition) 于2006年由剑桥大学出版社（Cambridge University Press）出版。第一卷涉及人口相关的7个主题，第二卷涉及劳动及福利相关的7个主题，第三卷涉及经济结构及成果相关的9个主题，第四卷涉及经济部门相关的8个主题，第五卷涉及政府及国际关系相关的8个主题。该历史统计书从殖民时期到现在，对39个广泛的主题提出了超过37000个统计序列，可以说是历史统计数据整理的一个典范。韩国的长期统计很多都参考了以上所提及的统计书籍。

除了上面提出的统计书籍之外,还有两种值得关注的书籍。第一，例如，麦迪森（Maddison）于2003年在OECD出版的《世界经济：历史性统计》(The World Economy:Historical Statistics)，虽然不是一个国家所有领域的统计书，但作为对经济史或经济学影响较大的统计书籍。这是推算全世界各国人口和GDP的历史趋势的统计书籍，对掌握世界经济史的历史变化起到了重要的里程碑作用。

第二，是一桥大学经济研究所进行的亚洲经济统计计划，该研究所构筑《长期经济统计：推算和分析》数据库。这项推算计划将会出版12卷书籍。如果只介绍各卷的题目，就是中国台湾、越南、中国大陆、韩国、朝鲜、泰国、印度、巴基斯坦、孟加拉国、菲律宾、土耳其、埃及、俄罗斯、中亚和日本。2019年，亚洲长期经济统计的第四卷收录了韩国和北韩篇。

下面介绍一下麦迪森的项目和亚洲长期经济统计现状与本统计书籍的关系。

安格斯·麦迪逊出生于1926年，是英国经济学家，比较公元后世界各国经济规模而享誉世界，之前介绍的《The World Economy:Historical Statistics》可以说是其代表性的著作。

他于2010年去世，去世之前一直在更新自己构建的世界人口及GDP数据。他的工作在他去世后，格罗宁根大学以所谓的麦迪森项目的名义更新数据库。麦迪森数据库中收录的韩国相关统计原本是日东桥大学推算的，但最近构建的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收录了韩国统计数据。可以说本统计书籍收录的统计资料的优秀性得到了认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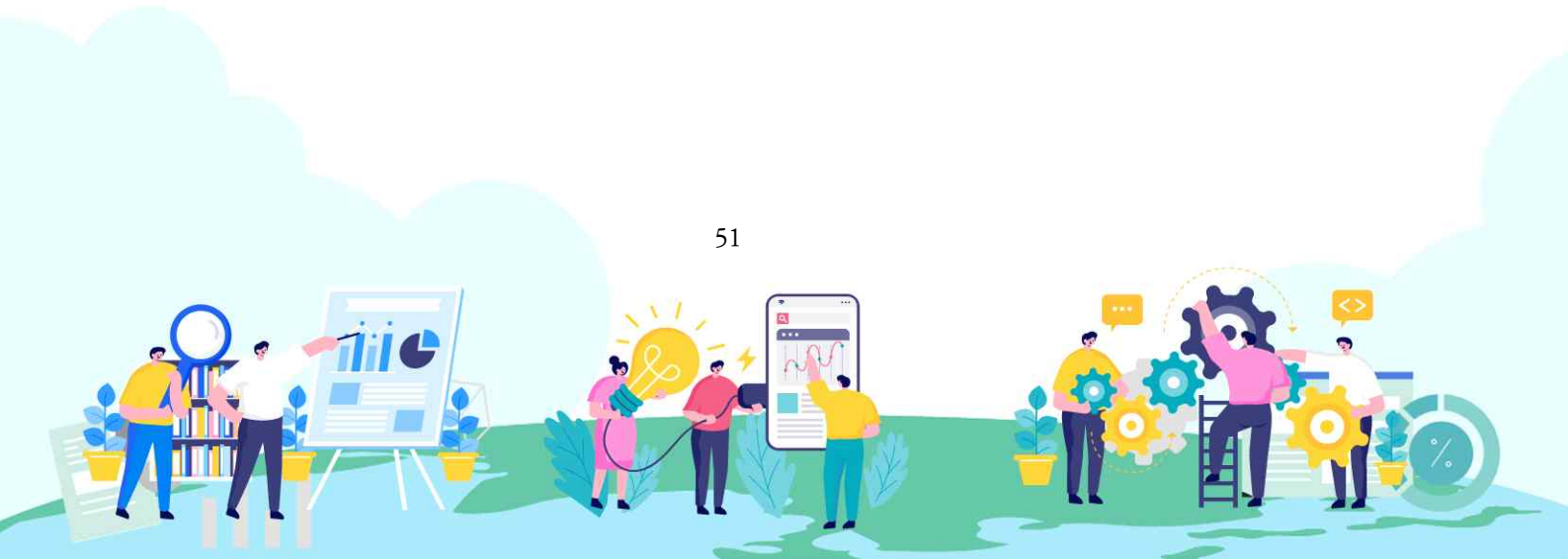
正如前面介绍的那样，一桥大学从1965年到1988年出版了14卷的《长期经济统计:推算和分析》。该统计书收集明治以后有关日本经济的时间序列数据，掌握资料特性后，在各领域进行独立推算，以此为基础计算出日本国民生产总值和国民总支出的统计书籍。

一桥大学一直以该研究为模型，构建亚洲多个国家的长期经济统计，2019年出版了亚洲长期经济统计第4卷韩国和北韩篇。这本书的序言中记载了该统计书籍中收录推算国民收入结果的《韩国经济成长1910-1945》和相关研究成果的参考。

日本的一桥大学经济研究所是亚洲各国统计构筑中起到枢纽作用的研究所，该研究所也评价了本统计书籍中收录的统计资料的优秀性。

主要发达国家对长期统计的构建赋予了很高的价值，为此付出了很多努力，并出版了自己的长期统计书籍。本统计书籍也是出于同样的宗旨出版的。

但是出版统计书并不意味着是有意义的。该数据在国际上如何得到评价是非常重要的，从本统计书上收录的国民收入来看，可以说受到了目前继续更新麦迪森项目数据库的格罗宁根大学和亚洲长期经济统计构筑枢纽作用的一桥大学的高度评价。



1-3 构建韩国长期统计的旅程

本书是作为整理我国长期统计努力的一部分而出版的。我想介绍一下这些工作的经过。

首先，在没有进行过现代统计调查的朝鲜时代后期，对两班日记和家庭账簿、秋收和土地买卖文件、洞契或门中契的会计相关资料、族谱等分散的微观资料，那个时候开始推算出人口、农业生产或地租、工资或物价等长期的趋势，其成果是2001年由一潮阁出版的《渚里的农民》和2004年由首尔大学出版社出版的《数量经济史中的朝鲜末期》。

《渚里的农研究民》收集并研究在1830年代-1950年代庆尚北道醴泉郡龙门面诸谷里的咸阳朴氏家族留下的日记、日常用品、分财记、随礼记录等数据进行分析的研究论文和著作，是农村财货市场的结构和变动、农村财货价和物价趋势、农业工资趋势、财村两班支柱经营的动向、身份构成和自治秩序、农村社会的信用和秩序。可以说是第一个从经济和社会层面综合实证分析农村社会的礼物交换、死亡的季节性分布、时期变化以及土地拥有的结构变化等传统社会的韩国近代村落生活史研究书籍。该著作出示了醴泉地区从1840年代到1930年代的各种生产、物价、工资、利率的时序。

1905年以前，可以说是没有根据公共权力对社会和经济进行系统统计的所谓"前统计时代"，在《渚里的农民》中，虽然只有醴泉郡一个村庄的例子，但在"前统计时代"中，收集整理朝鲜后期各种经济主体留下的微观资料，就能掌握韩国社会经济的长期变动。

事实上，除了醴泉郡龙门面诸里之外，还有许多包含了能够掌握朝鲜后期社会经济长期变动的微观数据。代表性的例子有，包含了全罗南道灵岩地区大米价格等各种经济信息的壮岩里文氏一族和望湖里李氏一族的计策中，从1744年开始经历了200多年，郡西面九林里的洞契从16世纪末一直持续到现在。此外，庆州龙山书院和方位里的计策、全罗道南海尹氏一族的计策、庆尚道安东李氏一族的计策、庆州玉山书院的图录和全如记、从1870年代开始60年间一直延续的蔚山沈氏两班的日记、蔚山九江书院的资料、南原的李氏一族的计策、扶余的郑氏两班的日记、燕岐的林氏一族的计策以及奎章阁收藏的1万个以上的庞大土地买卖文记和400多种仪轨等。

收集这些资料、构建能够掌握"前统计时代"朝鲜后期长期变化的时序列数据的研究论文的著作便是《重新审视数量经济史的朝鲜后期》。该著作整理了朝鲜后期和日本帝国时期的人口变动、1600年-1909年首尔熟练及不熟练工人的工资、1742年-1953年农村利率、1700年-2000年水田价格及生产性、1701年-1909年财物价格、1713年-1937年朝鲜各地米价、18-19世纪山林荒废化和农业生产率等能够掌握朝鲜时代长期变动的各种长期时间序列。

进入殖民地时期，近代统计调查开始，统计信息飞速增长。整理庞大的统计数据固然是一件大事，但用何种方式整理也是一件非常重要的事情。被评价为经济史学之父的库兹涅茨制定了近代经济增长的概念，提出了近代经济增长的特质，并建立了能够加深理解的实证分析体系，实证分析近代经济增长的最重要的工作就是推算国民收入。

第二次世界大战以后，大部分国家都在推算自己的国民收入，并以此作为信息基础，制定和执行经济政策。但是仅仅通过对二战后的国民收入的估算，我们无法理解从近代的经济增长时代到近代经济持续增长时代的过渡是什么时候开始的，以及过渡的结构是怎样的。为了实现这一目标，我们必须追溯国民收入在第二次世界大战前和进入现代经济增长前的历史，这一工作一直是经济历史学家的研究课题。英国工业革命前后的国民收入估算包括科尔和迪恩的估算，克拉夫特和哈里的修正估算，我们都知道这些估算是如何改变人们对英国工业革命的理解的。

麦迪森在国民收入统计中留下了伟大的足迹。但麦迪森不熟悉亚洲的历史统计，所以麦迪森在亚洲的国民收入估算中做了大量的估算，日本的一桥大学经济研究所成为了枢纽。一桥大学对解放之前韩国国民收入的估算被收录在麦迪森的数据库中，这也是原因之一。

学习日本一桥大学经济研究所的国民收入推算方法，以制造更好的推算值为目标，推进了整理殖民地统计工作，其结果于2006年由首尔大学出版部出版的名为《韩国经济成长1910-1945》的著作。这本书被日本一桥大学经济研究所参与韩国国民收入推算的研究员翻译，2008年在东京大学出版社署名《殖民地朝鲜国民经济计算1910-1945》出版。结合解放后整理过去100年间国民账户统计的成果于2012年由首尔大出版文化院以《韩国的长期统计:国民账户1911-2010》的署名出版。

此后，将解放前后统计尽可能一贯的努力扩展到国民账户以外的其他经济及社会的各个领域，可以说本书是将成果汇总成统计集进行解说。

其中尤其有必要提及《韩国经济成长1910-1945》和《韩国的长期统计:国民账户1911-2010》的出版意义。

《韩国的经济增长1910-1945》是整顿殖民地时期朝鲜的经济统计,并根据联合国建议的国民账户体系(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推算国民账户统计的。

这样的估算工作过去也曾尝试过。代表性研究是SuhSang-Chul教授于1978年在Harvard University Press出版的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和1988年在东洋经济新报社出版的沟口敏行教授和梅村贤次教授共同编辑的《旧日本经济新报》。

这些推算在《韩国经济成长1910-1945》出版之前在国际上被广泛利用，但在资料和推算方法上还有不少补充或改善的余地。《韩国经济成长1910-1945》中收录的国民账户统计与先行研究相比，有几个方面需要得到评价。

首先,广泛发掘了现有研究中未能被利用的第一次资料,并用于推算。而且,在仔细品味统计资料的过程中,研究了统计调查方法的变更、部分统计资料的低覆盖率(coverage)问题、过少申报或重复刊登等问题,并进行了必要的完善,与以往的研究不同,提出了国内生产总值(GDP)及其支出(GDE)推算,并为了保持两个推算的匹配性,改善了推算方法。而且,通货紧缩器的推算也统一为目前联合国建议的最理想的指数,尽可能地将殖民地统计与韩国银行的现行国民账户统计相连接。

《韩国经济成长1910-1945》的优秀性得到了日东桥大学的认可，日东桥大学研究组将本书翻译成日语，2008年东京大学出版部出版了《殖民地朝鲜国民经济计算1910-1945》。

2012年出版了《韩国经济成长1910-1945》的修订版《韩国的长期统计:国民账户1911-2010》。《韩国经济成长1910-1945》中推算国民账户的时间为1911年至1940年，为了将其与解放后的现行统计相衔接，必须进行三项工作。

第一,联合国在1953年、1968年、1993年三次改编国民账户体系(SNA),1993年SNA之前的统计按照现行标准统一。在推算殖民地国民账户统计时，韩国银行按照1968年SNA计算，收录在《韩国经济成长1910-1945》中的推算也相应。但是,韩国银行的国民账户已经通过1993年SNA完成了履行,因此有必要对此进行改编。

第二，解放前是包括朝鲜在内的韩半岛整体的统计，解放后仅限于韩国，因此有必要使两个时期的统计数据一致。殖民地时期的道别统计比较丰富，如果利用这些统计资料，这个时期的GDP可以分为道别乃至南北两部分。

第三，解放前后(1941-52年)由于资料的限制，无法估算国民账户，但只要挖掘分散的资料并进行整理，就能在一定程度上恢复这一政治巨变期的生产趋势。《韩国的长期统计:国民账户1911-2010》包含了执行上述课题的成果，尽可能地提出了从1911年到2010年的长期国民账户统计，题目也变更为《韩国的长期统计:国民账户1911-2010》。

以上介绍与长期统计构建相关的主要业绩后，以《韩国经济成长1910-1945》和《韩国的长期统计:国民账户1911-2010》为中心介绍了本统计书中收录的统计中在国际上得到高度评价的国民收入推算的过程。

直到韩国的长期统计出来为止，得到了很多支援。提供研究支援的支援机关和研究课题名如下。

仅介绍支援机关和研究课题名，韩国学术振兴财团支援的"韩国长期经济统计的收集、整理及推算:以18-20世纪的人口、价格、计算、收入统计为中心"，韩国研究财团支援的"解放前后统计空白期经济统计的整顿、推算及连接"，大韩民国教育部和韩国学中央研究院支援的"韩国长期历史统计数据库的构建和统计书发行"。

1-4 采访：与编者的采访

（提问）

您好？前面介绍了构建韩国长期统计的旅程。下面将邀请在本统计书籍中得到最高评价的国民收入推算的编辑金洛年教授，听取我国国民收入推算所展现的历史,以及长期历史统计出版的意义等。

本书中收录的国民收入推算在国际上也得到了很高的评价。本书中收录的国民收入推算所体现的历史情况是什么？

（回答）

以本书的推算结果中的几个为例，从1911年开始的40年间，年均经济增长率为3.7%，人口增长率为1.3%。年均增长率9%的工矿业和电气建设业的增长主导了这一发展，增长率5%的服务业紧随其后。结构变化非常快速。

在支出方面，贸易和投资的增加主导了增长。贸易依赖度从初期的20%上升到1930年代末的60%，投资率也从同期的5%上升到14%。民间消费支出年均增长3.3%，考虑到人口增长，人均增长率推算为1.9%。谷物消费虽然略有减少，但其他食物和工业产品等的消费却有所增加。

这种增长和结构变化与韩国高速增长时期相比速度较慢,但与当时其他国家相比速度相当快。关于朝鲜后期，虽然无法期待如此水平的推算，但从至今为止显现出的指标来看，19世纪的朝鲜经济处于停滞状态。

如果将人均收入持续增加的现象理解为近代经济增长，那么我认为是从殖民地或之前的某个时期开始近代经济增长的。但是，这一过程从1940年开始，因1950年代的解放和分裂、战争等政治、社会剧变而暂时后退或中断，到1960年代以后才加速。

但有必要注意的是，殖民地时期的推算值中包括了居住在朝鲜的日本人的经济活动。因为从国民账户中掌握的朝鲜居住者不是民族标准，而是判断是否将“经济利益中心”放在朝鲜。虽然现在也一样，但民族间或阶层间的收入分配实态不能在国民账户统计中即时获得，今后还需要继续更多的推算工作。

但是分析本推算，在这个时期，民族间、阶层间收入差距拉大，不平等现象加剧，但朝鲜人的人均收入却有所增加。也就是说,如果仅限于朝鲜人,增长和结构变化的速度会比上面提出的数值慢,但朝鲜人在这种变化过程中也不例外。

本研究新的殖民地时期核定的国民收入是朝鲜后期和解放后时期建立长期的观点是至关重要的。殖民地时期的经济增长虽然由日本人主导，但也是朝鲜人自身经济活动的产物。解放后韩国经济从这个遗产上起步。从这个意义上说，殖民地时期可以看作是韩国经济更长期的变化过程的一个局面。

普通人对于殖民地时期的认识一模一样地整齐划一。学界也没有太大的不同，因此不想容忍脱离这一问题的讨论。围绕这一时期认识的问题不仅仅是过去的问题，而且正如韩日历史教科书纷争中看到的那样，至今仍是政治外交悬案。因此，关于殖民地时期的评价更不能摆脱民族主义的理解或政治判断。

举例来说，本估算认为这一时期实现了近代经济增长，从这个角度来看，也许会被指责为殖民统治正当化的逻辑。也许至少在接受的时候会感到不舒服。但不需要跨越逻辑。因为分析并理解这一时期出现的经济现象和批评殖民统治的不当性是不同层次的问题。殖民统治的不当性在于日本帝国主义违背韩国人的意志，侵占主权，而不是被这一时期经济成果的好坏所左右。

尽管如此,很容易将两者结合起来思考,是因为遭受殖民统治的痛苦历史尚未愈合,受害意识仍然存在。这种情况可能会成为用客观的眼光淡定地看待这一时期的障碍。从以往的讨论，例如"掠夺论"和"殖民地近代化论"的争论中可以看出，消耗性地流过就是因为这个原因。

(提问)

韩国的长期统计有22名学者参加，构建了22个领域的长期统计。如此长期统计的整顿在韩国的研究状况下具有怎样的意义呢？

(回答)

大致可以考虑三种意义。

第一，有关韩国经济的研究范围可以扩大到近代初期。我国在近代以后从传统社会转变为殖民地体制，解放后南北分裂。因为每个时期统计资料的情况都大不相同,所以在制定一贯的长期统计方面存在很多障碍。分裂加重了这种困难。

不仅如此，殖民地时期还受到移民族的支配，因此在直接比较或连续掌握这一时期时，存在心理上的抵抗感。因此,朝鲜后期、殖民地、解放后各时期的研究在没有共享问题意识或相互交流的情况下,出现了中断的情况。长期统计在资料方面降低了进入其他时期的门槛,使各时期出现的经济变化相互比较,从而在更长期的脉络中重新研究局限于个别时期的研究时间。

第二，殖民地分配和分裂给制定长期统计带来了困难，但换个思路想一想，可以说是在其他国家没有经历过的多次体制转换试验。传统社会受到急剧开放冲击的开港期、依靠外来权力的殖民地体制重组、解放后再次向资本主义和社会主义体制转变。

各个时期的体制和制度不同,在经济成果上也差异很大。如此看来，我国近现代史具有制度或体制变化与经济增长或社会变化之间多种关联的丰富事例。如果长期统计得到整顿，可以比较分析近代以后的各个时期，那么研究的视野将扩大到制度和体制履行问题。

第三，在历史研究者中，虽然指出根据专业时期的研究被切断，但类似的情况在经济学和经济史研究者中也可以找到。一直以来,韩国经济的高速增长在国际上也备受瞩目,进行了很多研究。主要依靠经济学家的这些韩国经济研究大致限于1960年到1970年代的高速增长期以后，讨论未能扩大到之前的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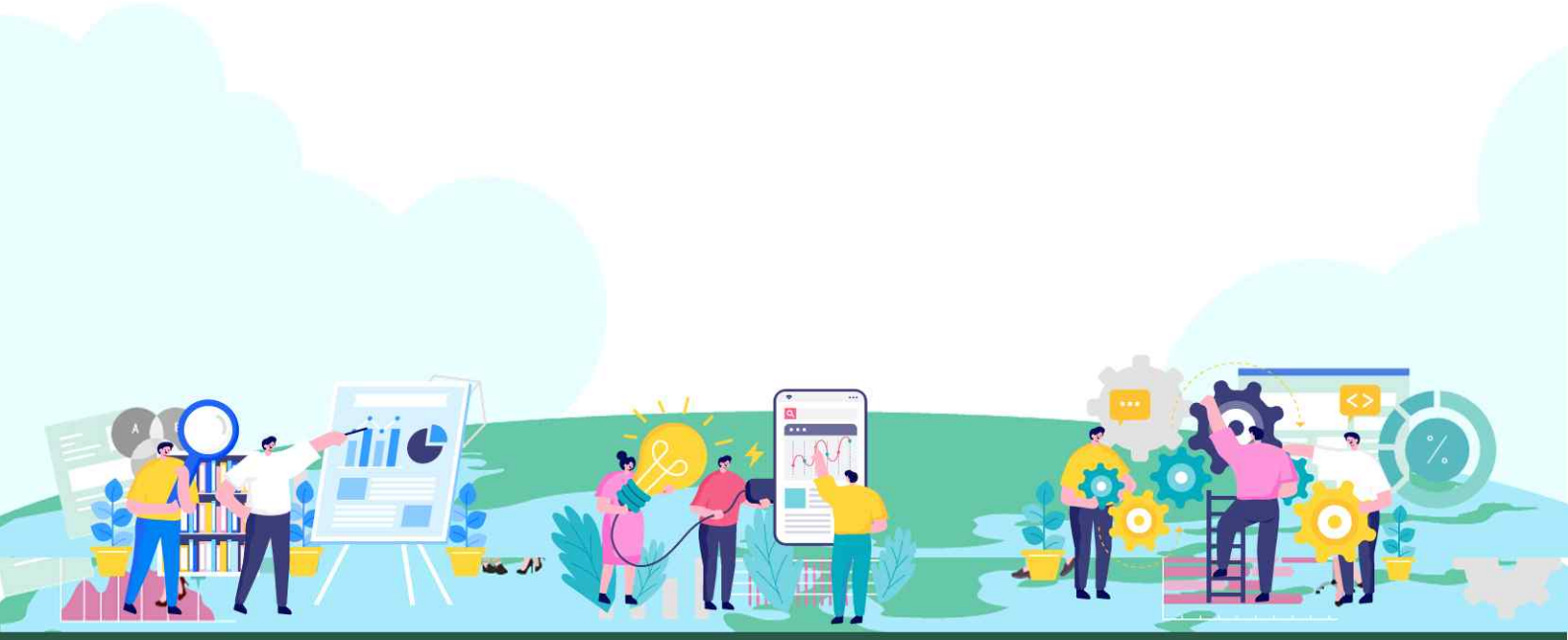
结果，韩国陷入将高速增长限定在当时因素上的倾向，很难考虑历史规定性和制度变化的因素。虽然研究的关注和方法存在差异,但我认为资料上的壁垒也很大。

像这样,如果长期统计这一基础设施得以完善,我认为这将成为专业时期或关心不同的多种背景的研究者相互接近、交流的场所。

到现在为止，我们邀请了《韩国的长期统计I》和《韩国的长期统计II》的共同编辑金洛年教授，就本统计书中得到最高评价的国民收入推算所展现的历史和长期历史统计出版的意义等进行了探讨。感谢您抽空接受这次的访谈。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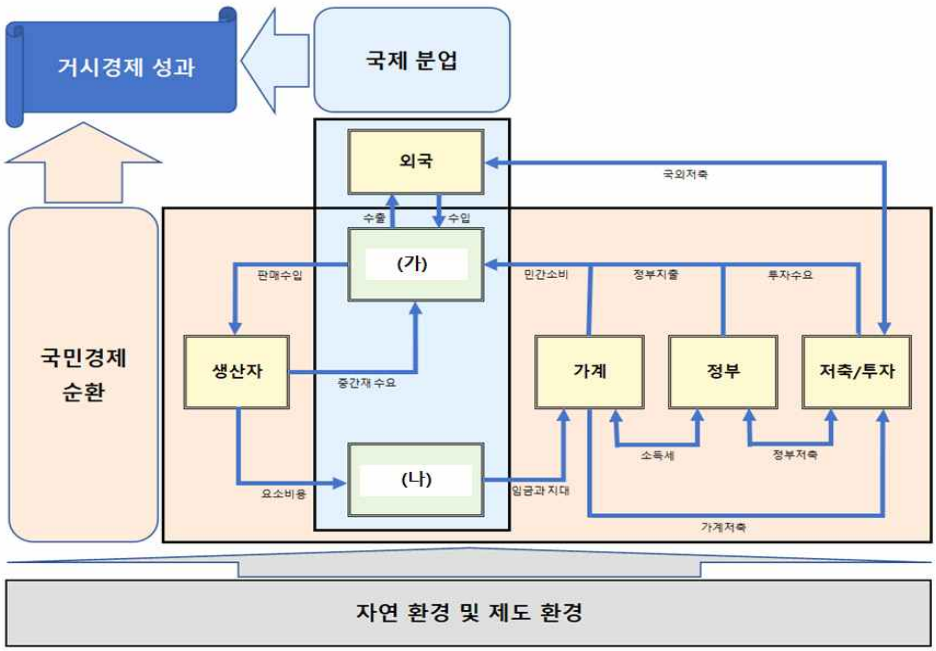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모식도의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을 잘 제시한 것은?

5분



① (가) 자본시장 - (나) 노동시장
② (가) 화폐시장 - (나) 노동시장
③ (가) 자본시장 - (나) 생산요소시장
④ (가) 생산물시장 - (나) 생산요소시장

정답 ④

해설 가계, 정부, 기업에게 판매되고, 그 판매수입이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시장은 생산물시장이므로 (가)는 생산물시장이고, 생산자가 요소비용을 지급하고 고용하고, 그 공급자는 임금과 지대를 받는 시장은 생산요소시장이므로 (나)는 생산요소시장입니다.

02 5분

매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대학과 아시아 장기경제통계 추계작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잘 제시한 것은?

① 옥스퍼드 대학 – 도쿄 대학
② 캠브리지 대학 – 교토 대학
③ 그로닝겐 대학 – 히토츠바시 대학
④ 캠브리지 대학 – 도쿄 대학

정답 ③

해설 그로닝겐 대학은 매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장기경제통계집을 만든 곳으로서, 그것을 모형으로 하여 아시아 장기경제통계 추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 5분

근대적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특질을 제시하고, 국민소득 추계 방식을 정립한 학자는?

정답 쿠즈네츠

해설 사이먼 쿠즈네츠는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러시아계 미국인 경제학자로, 근대적 경제성장의 개념을 만들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특질을 제시하였습니다.

04 5분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에 수록된 국민계정 통계가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개선시킨 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존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던 1차 자료들을 널리 발굴하여 추계에 활용하였다.
② 통계자료를 면밀하게 음미하는 과정에서 통계 조사방법의 변경, 일부 통계 자료의 낮은 커버리지 문제, 과소 신고 또는 중복 게재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였다.
③ 기존 연구와 달리 국내총생산(GDP)과 그에 대한 지출(GDE) 추계를 모두 제시하고, 두 추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계방법을 개선하였다.
④ 식민지기의 국민소득 추계를 과거로 소급하여 신뢰할 만한 조선후기 국민소득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해설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은 조선후기 국민소득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05 5분

한국의 장기통계의 정비가 한국의 연구 상황에 가지는 의의로 볼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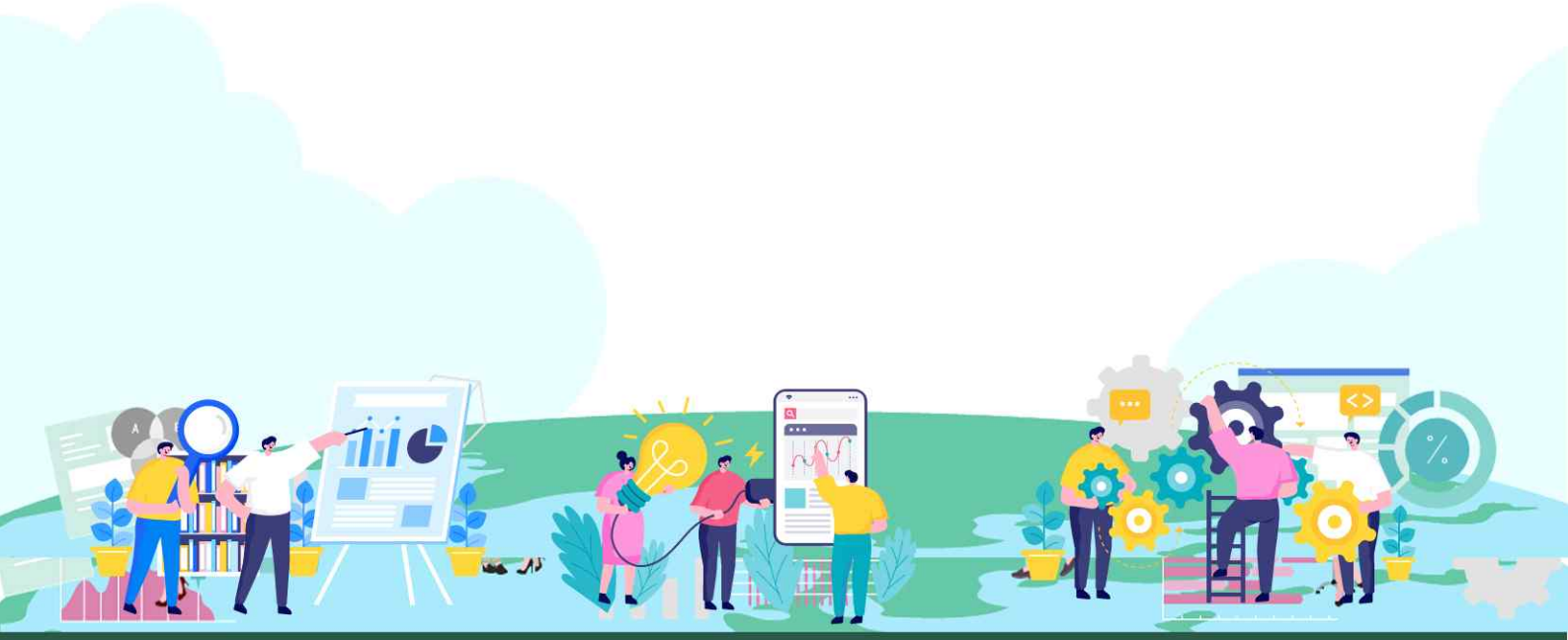
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대체할 수 있다.
② 한국경제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근대 초기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③ 장기통계가 정비되어 근대 이후의 각 시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연구의 시야를 제도와 체제이행의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넓힐 수 있다.
④ 장기통계라는 인프라가 정비되면 전공의 시기나 관심이 다른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서로 접근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한국의 장기통계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제공하는 공식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통계들과 정합적인 소급통계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한국의 장기경제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경제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라.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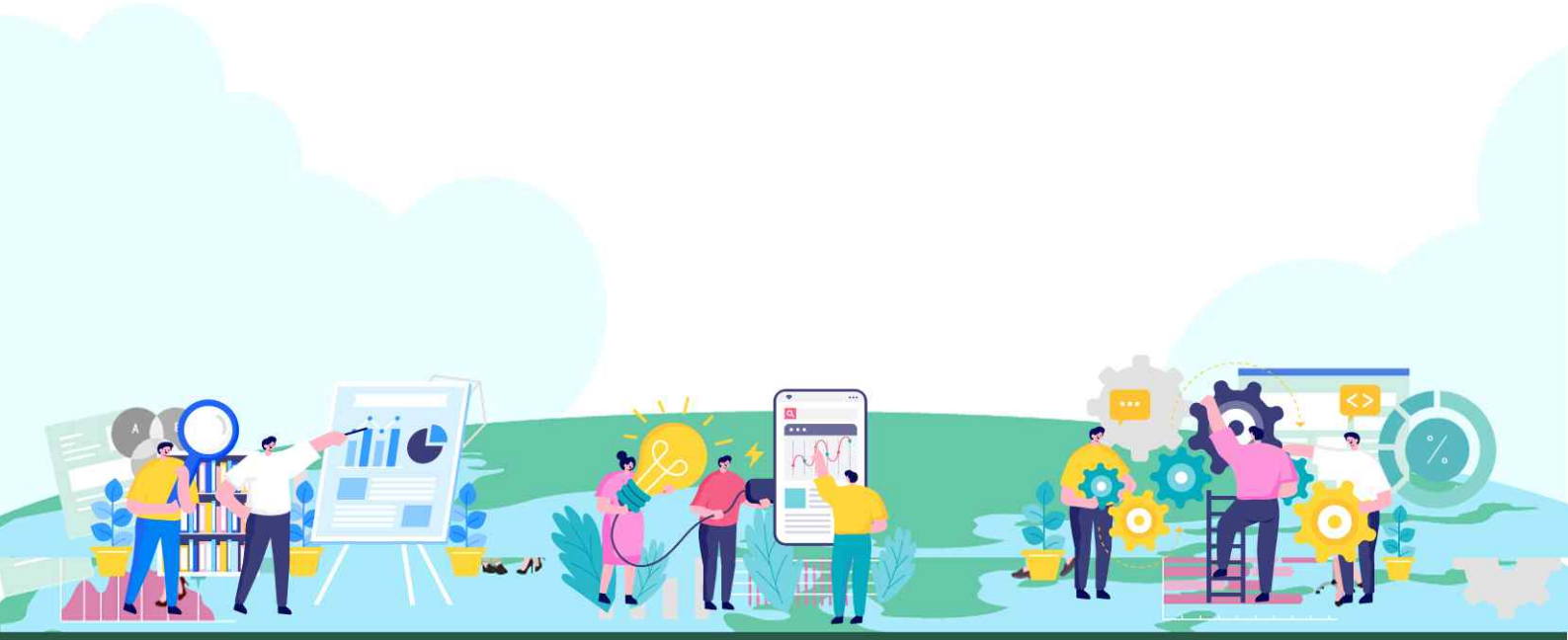
참고

한국경제사 연구는 한국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조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한국의 장기경제통계는 이를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역사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국의 장기경제통계는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한 가이드 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 위의 내용에 더하여 한국의 장기경제통계 구축이 한국경제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출판부, 2012.

초판 머리말과 개정판 머리말을 읽어볼 것

- 김낙년·박기주·박이택·차명수 편, 『한국의 장기통계 I』, 해남, 2018.

머리말과 차례 및 전체 구성을 살펴볼 것

- 김낙년·박기주·박이택·차명수 편, 『한국의 장기통계 II』, 해남, 2018.

전체 구성을 살펴볼 것

- 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총론을 읽어볼 것

-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머리말을 읽어볼 것

- Cha, M.S., Kim, N.N., Park, K.-J., Park, Y. (Eds.),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Studies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2022.

전체 구성을 살펴볼 것

웹사이트

- [매디슨 프로젝트] 매디슨 프로젝트 2020에 수록한 남한과 북한 데이터는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에 의거한 것입니다.

https://www.rug.nl/ggdc/historicaldevelopment/maddison/releases/maddison-project-database-2020

- [히토츠바시 대학 아시아 장기경제통계 추계작업]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 Asian Historical Statistics Project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ier.hit-u.ac.jp/COE/English/index.html